

금융산업의 변화와 향후 과제

2007. 6. 8.

김 동 환



한 국 금 융 연 구 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목차

- I. 문제의 제기
- II.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및 문제점
- III.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
 - (1) 금융환경 관련 이슈
 - (2) 금융시장 관련 이슈
- IV.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목차

I. 문제의 제기

문제의 제기

- 현재 우리경제는 완만한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향후 대외경제 여건이 추가로 악화되면서 성장률 및 성장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성장률 둔화 및 성장동력 저하



문제의 제기(계속)

경제의 현주소

탈공업화의 지연 및 정체

-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음.

구조적 취약성 및 양극화

- 수출주도의 제조업 : 고생산성-인력부족
-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 저생산성-과잉취업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 기업 설비투자 및 가계소비지출 둔화, 부동산투자 과열, 과도한 위험회피, 성장동력 소진

금융의 현주소

은행 및 증권은 편향된 수익구조로 효율성 취약

- 은행 : 낮은 비이자수익 비중 - 한국('05년) 13.0%, 미국('03년) 44.1%, 영국('01년) 45.2%
- 증권 : 높은 위탁매매수수료 비중 - 한국('05년) 61.0%, 미국('03년) 19.0%

IMD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평가 중하위(37위) 기록('06년)

- 외형상 지표(외환보유고, 은행자산)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금융시스템 및 금융인력 등 질적인 측면은 낮게 평가

OECD 주요 국가의 금융·보험업 생산성 비교('05년) 에서 26개국 중 19위

미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목차

II.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및 문제점

금융구조조정의 취지

금융권별 성과 및 문제점

금융구조조정의 취지

-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하부구조를 개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부실금융기관 정리

	'97년말	'06.9월말
금융기관	2,103	1,320
은행	33	18
상호저축	231	110
신협	1,666	1,030

- 금융기관의 대형화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기능제고

-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01.1)
-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
- 채권시장하부구조의 개선 및 국채시장 활성화

금융감독 선진화

- 금감위('98.4) 및 통합 금융감독원 설립(99.1)
- 건전성 감독 강화
 -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제도 도입('99.12)
 -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98.6)

자율경영체제 확립

- 지배구조 개선
- 내부 통제제도 개선
- 독립적인 여신전문위원회 등에 의한 여신결정



목차

금융권별 현황과 문제점

1. 은행권

2. 보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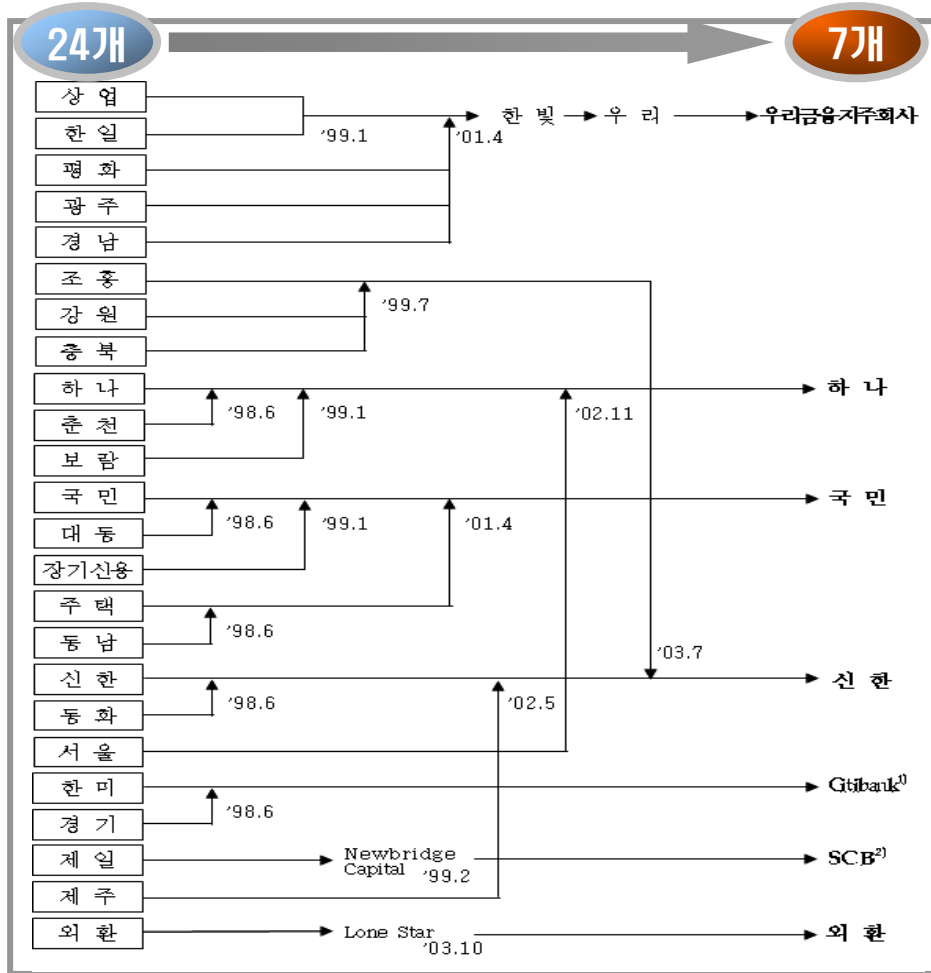
3. 증권권

4. 비은행권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및 시장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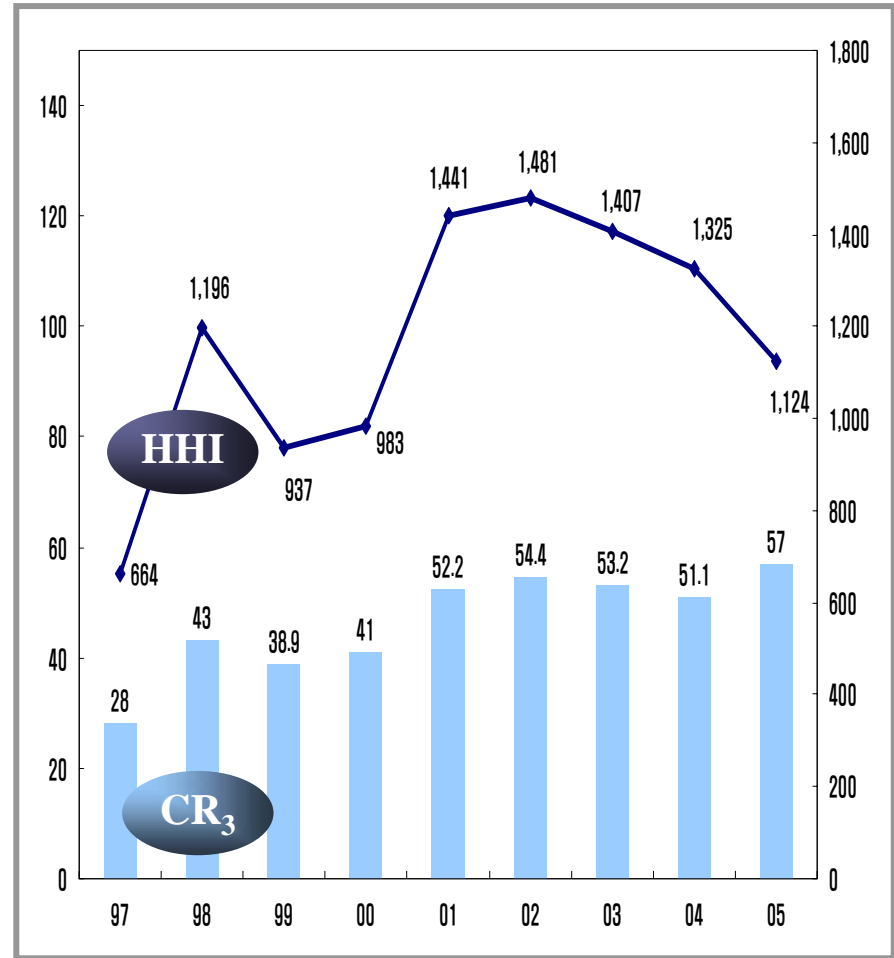
합병 및 퇴출 등으로 과당경쟁(over-banking) 내지 저효율 체제 탈피

- 국내은행의 인수 합병 추이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 일반은행의 시장집중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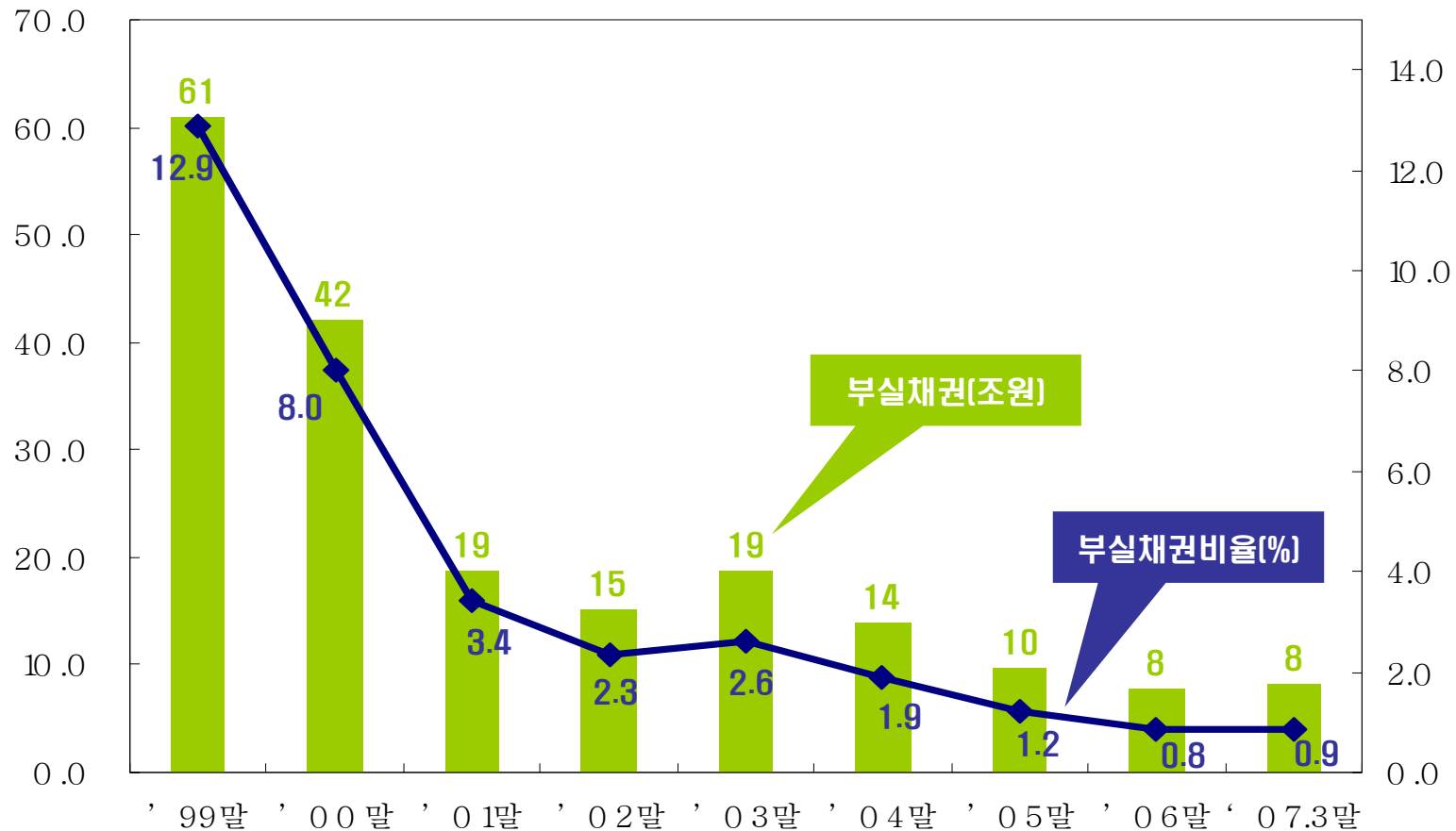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건전성을 제고하면서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영업전개

-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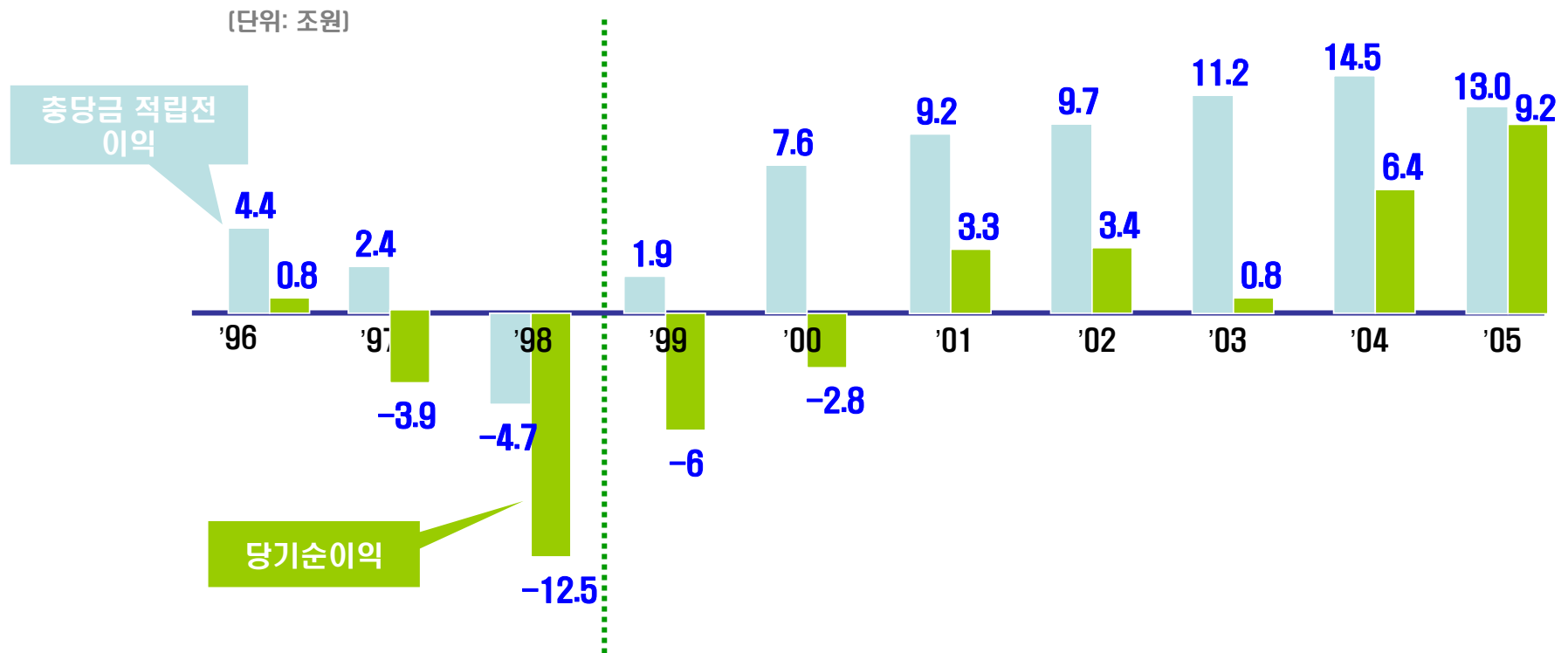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산업의 수익성

▪ 2001년 이후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생존을 위한 수익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

- 1999년 이후 안전자산 선호 및 안정적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소매금융 전환을 통해 수익성 확보
- 2004년 이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및 여신건전성 관리에 주력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기록



주: 일반은행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산업의 수익구조

- 하지만 수익구조(특히 비이자부문)는 여전히 취약

	구분	총자산 이익률 (ROA)	영업 총이익률	순이자		
				마진	비이자 수익률	순이익률
비 과	1999	-0.83	2.47	2.58	0.22	-33.7
	2000	-0.59	2.27	2.57	-0.06	-25.9
	2001	0.66	2.93	2.88	0.38	22.6
	2002	0.60	3.04	2.90	0.54	19.9
	2003	0.17	2.97	2.75	0.60	5.9
	2004	0.85	3.16	2.85	0.74	27.0
	2005	1.27	2.98	2.81	0.38	42.5
	2006	1.12	2.82	2.64	0.37	39.8
	평균	0.41	2.83	2.75	0.40	12.26
미 과	2005	1.31	5.44	3.40	2.56	24.1
	2006	1.39	5.45	3.32	2.63	25.6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익성 개선은 대손비용감소, 영업외 이익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순이익률 상승에 기인

- 인건비 등 판관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부실여신 정상화로 대손충당금 대규모 환입

□ 하지만 비이자 부문의 이익창출 능력 미흡

- 수수료 수익 비중 낮음

□ 이자 부문에서의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

- 은행간 경쟁심화로 순이자마진 축소

목차

금융권별 성과 및 문제점

1. 은행권

2. 보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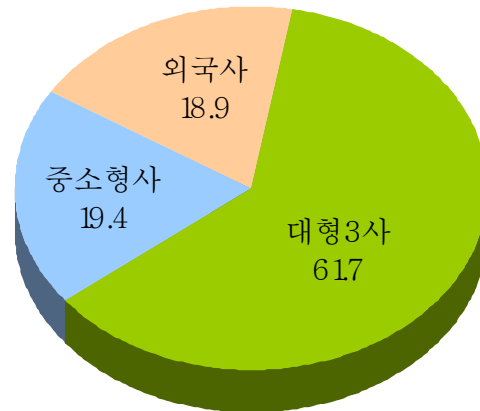
3. 증권권

4. 비은행권

보험산업의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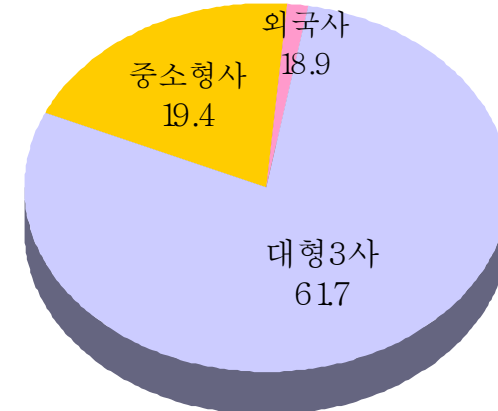
- 상위 3~5개 대형사의 과점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계 약진 및 국내 대형사 M/S 위축

생명보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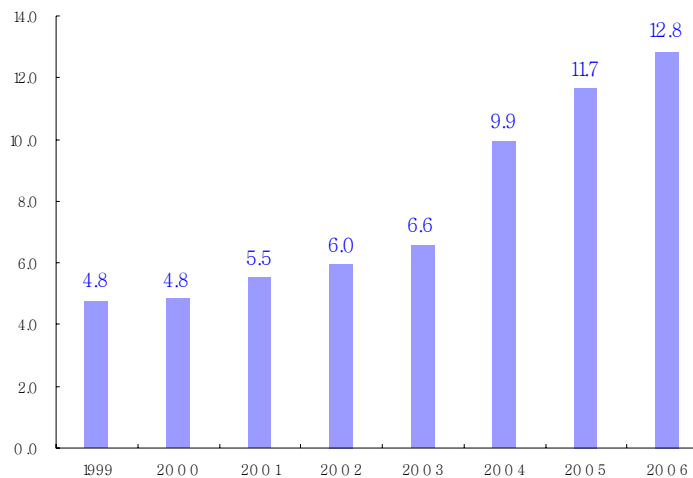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손해보험사



총자산 기준
외국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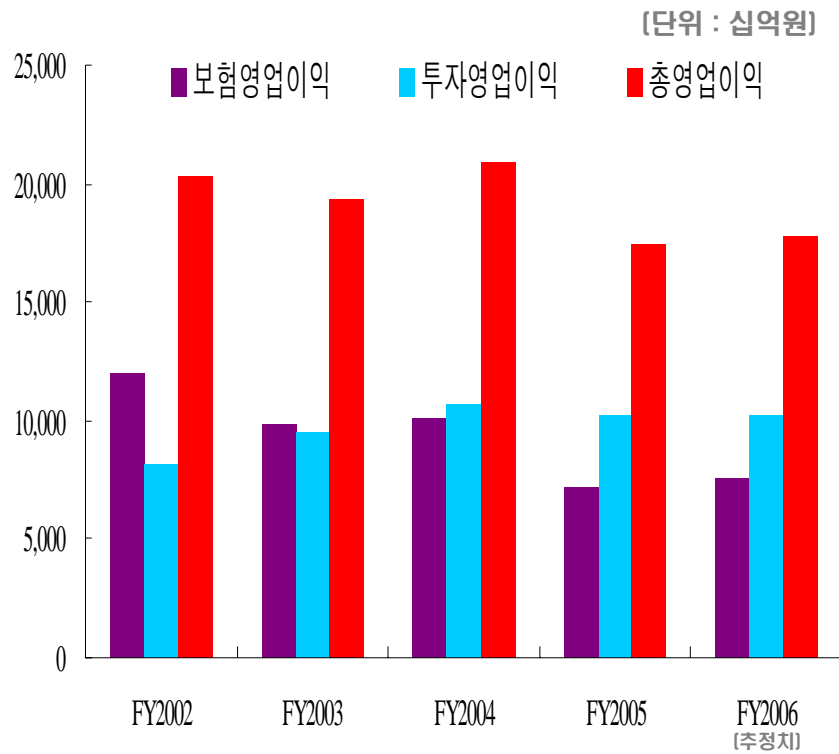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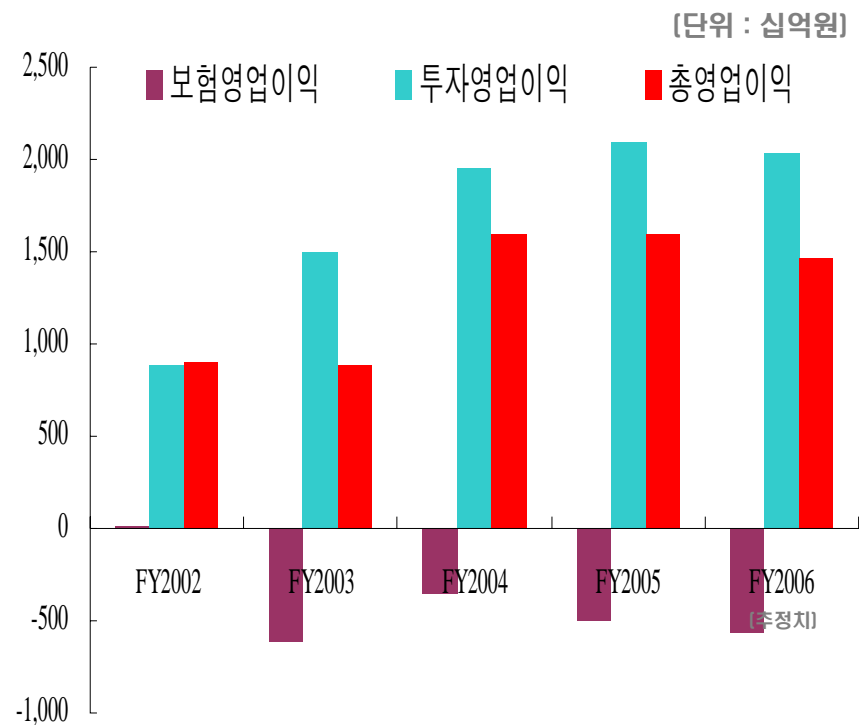
보험산업의 수익성

- 외국계 점유율 확대, 타 금융권과의 경쟁심화, 생·손보사간의 업무영역 파괴 등으로 총영업이익 등 수익성 둔화

- 생명보험 수익성 추이 -



- 손해보험 수익성 추이 -



보험산업의 경영실적

- 생보사의 경우 총자산이익률, 효력상실해약률 등은 양호하나, 그 외의 경영효율성, 수익성, 건전성 등의 주요 지표는 외국계에 뒤처짐.
- 손보사는 수익성 및 경영효율성은 양호하나 성장성, 건전성 및 유동성 등의 주요 지표가 외국계에 비해 낮음.

[단위 :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주요지표	국내계	외국계	주요지표	국내계	외국계
성장성	수입보험료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6.3	40.0	수입보험료 증가율 (최근 3년 평균)	10.4	37.5
수익성	총자산이익률	5.5	4.5	총자산이익률	4.19	3.81
	수지차비율	57.3	132.3	현금수지차비율	29.27	9.40
경영 효율성	신계약률	10.9	14.1	경과손해율	79.89	35.65
	효력상실해약률	5.7	6.2			
	보험금지급률	62.6	33.2	순사업비율	22.28	48.96
	사업비율	7.7	10.1			
건전성	위험가중자산비율	41.3	22.2	위험가중자산비율	52.85	27.27
	지급여력비율	242.3	181.5			
유동성	유동성비율	194.3	232.2	유동성비율	165.23	530.07

주 1: 2006년 9월말 기준

2: 지급여력비율은 2006년 3월말 기준이고, 국내 생보사는 대형 3사 기준 [중소형사 평균은 222.1]

자료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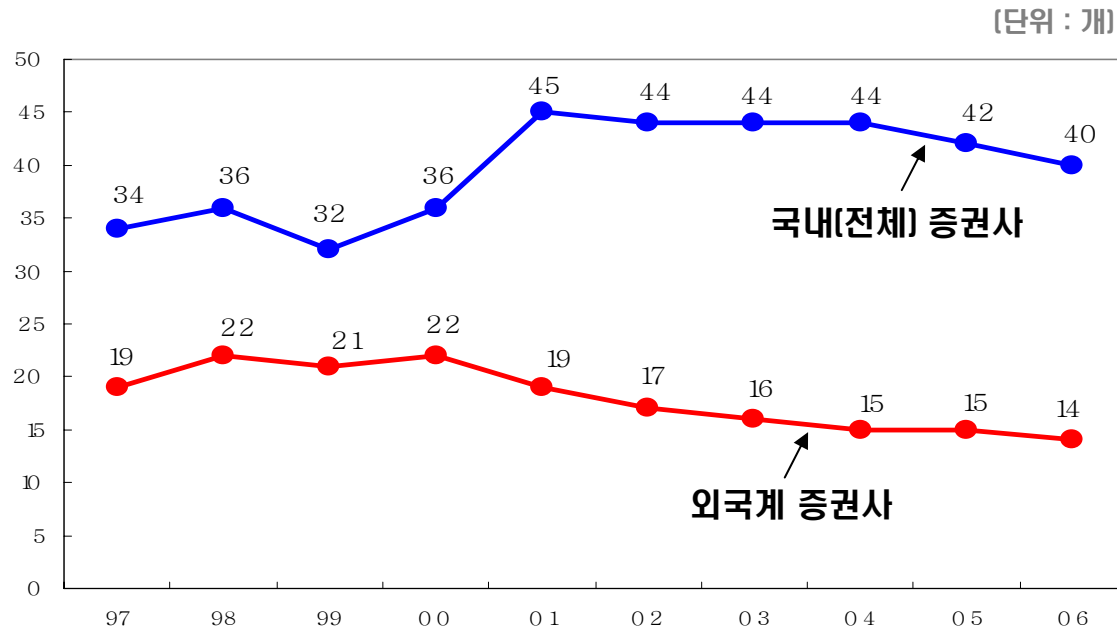
금융권별 성과 및 문제점

1. 은행권
2. 보험권
3. 증권권
4. 비은행권

증권사의 현황

- 부실증권사 퇴출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및 외국계 증권사 진출로 증권사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

- 증권회사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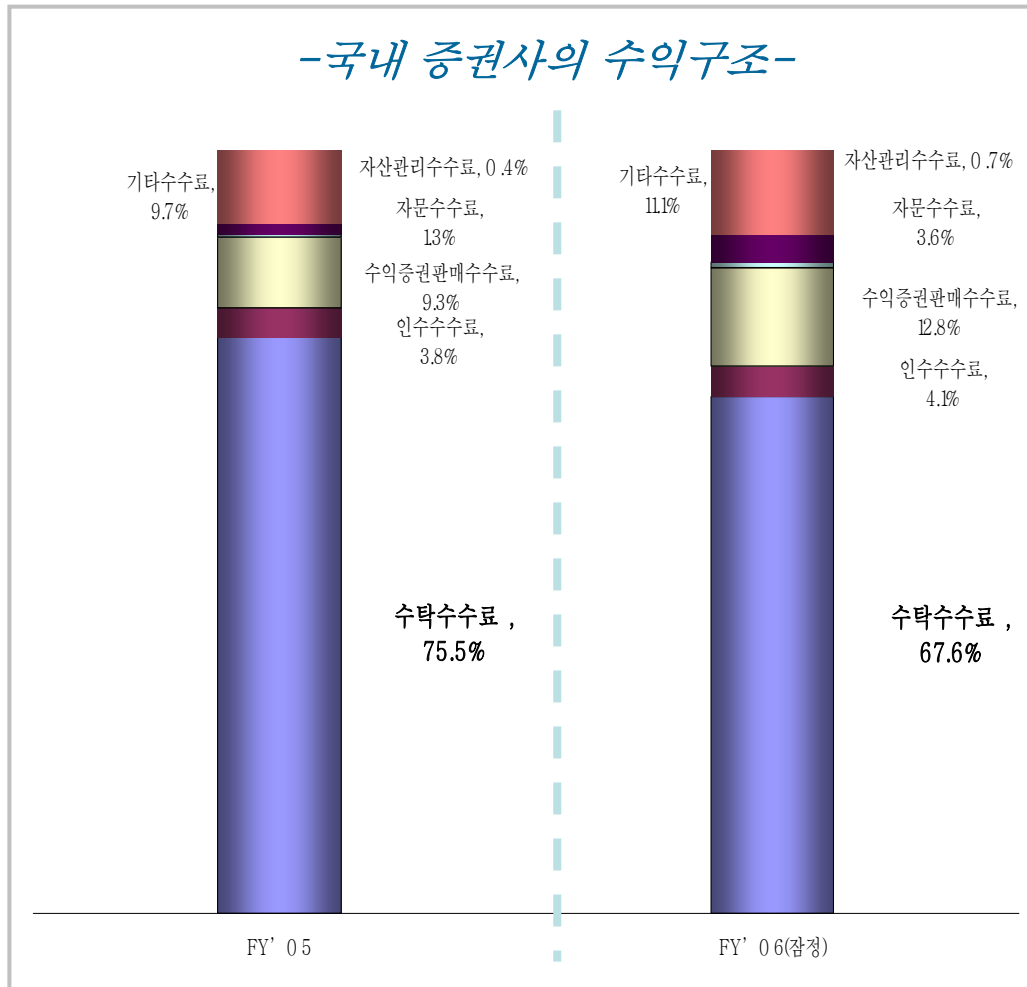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과당경쟁에 의한 수수료 수입 감소, 전산투자 등의 비용부담으로
자본축적이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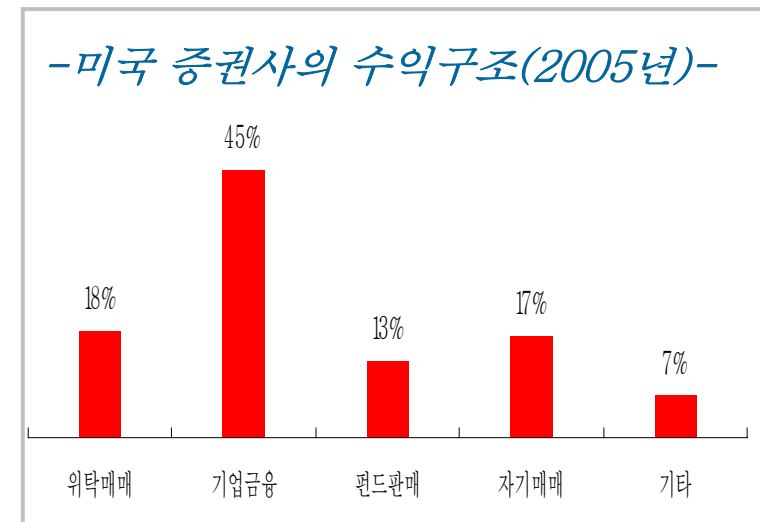
증권사의 수익구조

-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는 위탁매매 등 단순 중개업에 치중
- 대형 증권사일수록 투자은행업무보다는 단순 중개업 중심의 업무구조를 지니고 있음.



-증권사 규모별 수익구조(2005년)-

	위탁매매	투자은행
대형사	65.9%	3.8%
소형사	41.0%	9.8%



자료 : 금융감독원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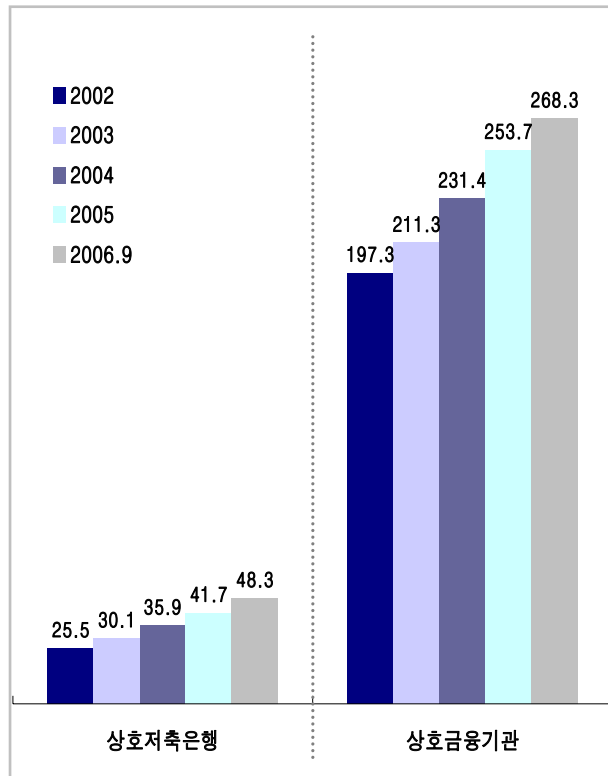
금융권별 성과 및 문제점

1. 은행권
2. 보험권
3. 증권권
4. 비은행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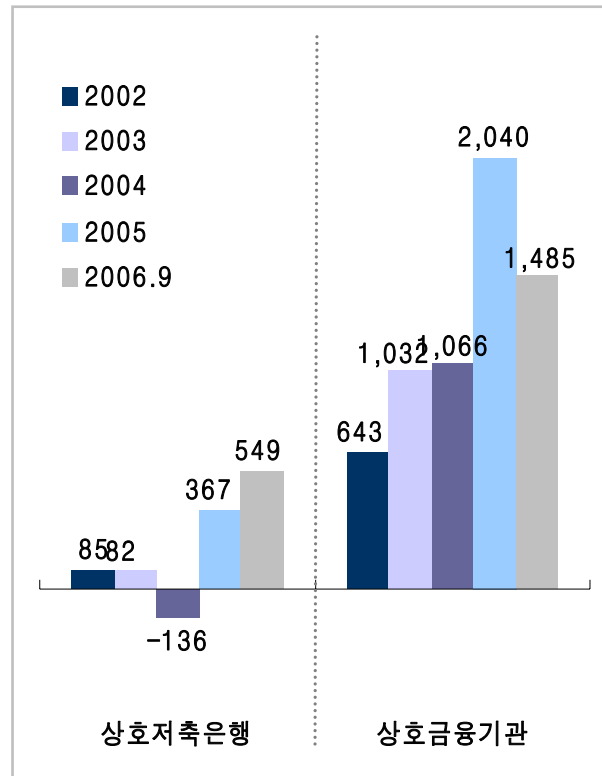
서민금융기관

- 구조조정 과정을 겪으면서 위축되었던 업세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 ❖ 수익성 및 건전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 ❖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협, 신협)의 지역조합은 건전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일부 조합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진행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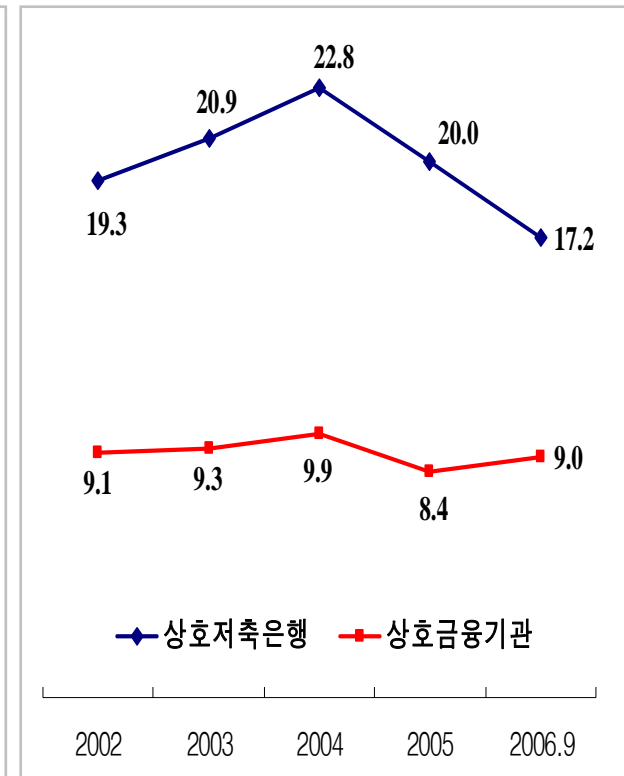
- 자산 추이(조원) -



- 당기순이익 추이(십억원) -



- 연체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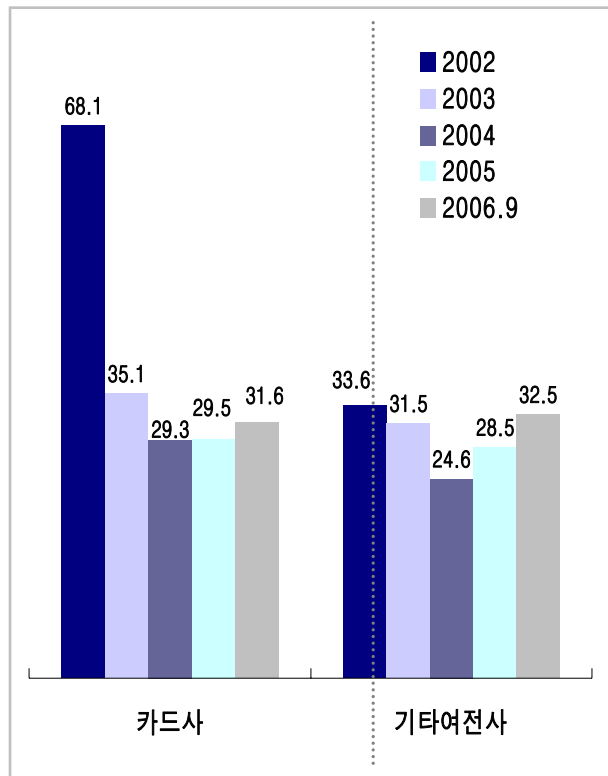


주: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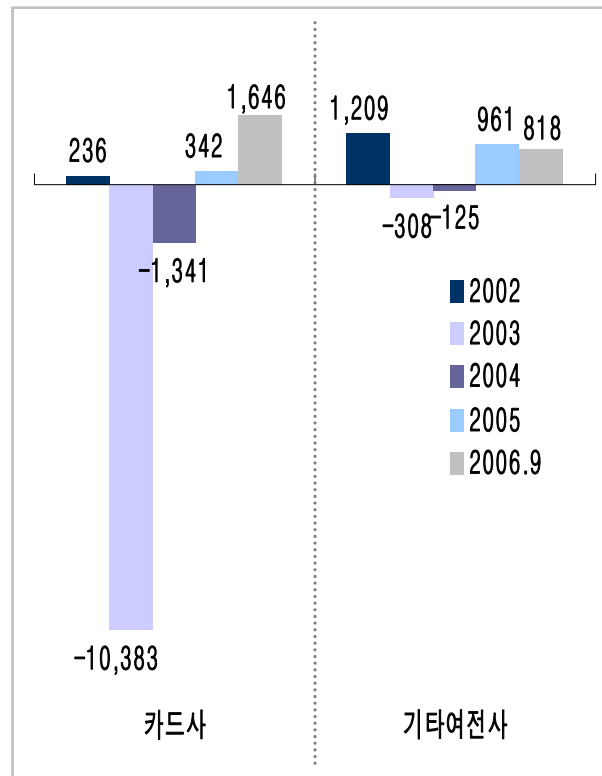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회사

-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영업력 강화로 경영 실적이 개선
 - ❖ 카드사는 기존 부실채권 상각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2005년 4/4분기부터 흑자 전환
 - ❖ 기타 여전사는 자동차 리스시장 성장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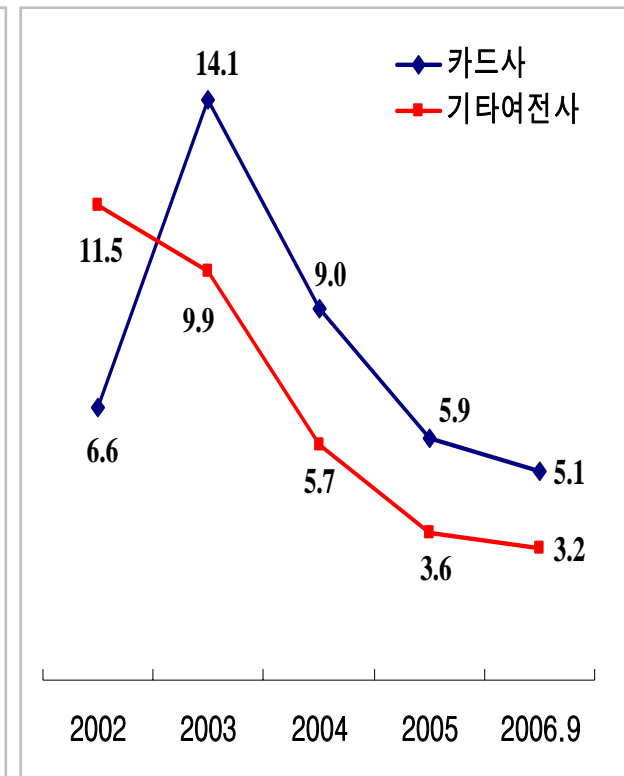
- 자산 추이(조원) -



- 당기순이익 추이(십억원) -



-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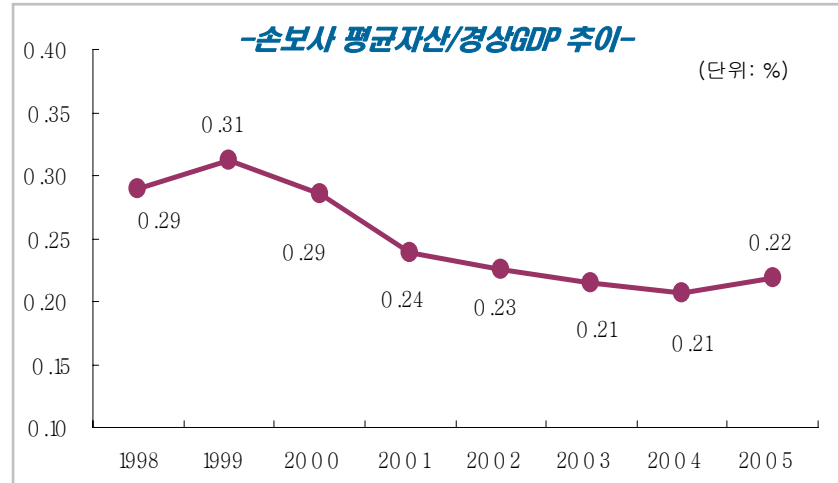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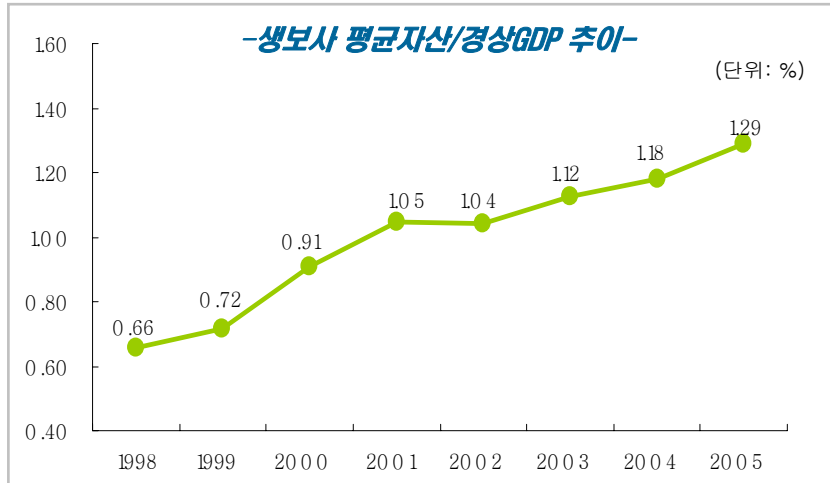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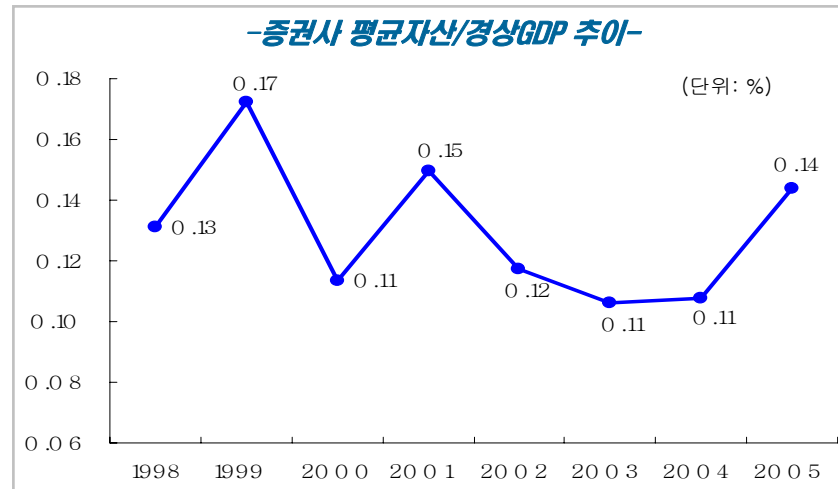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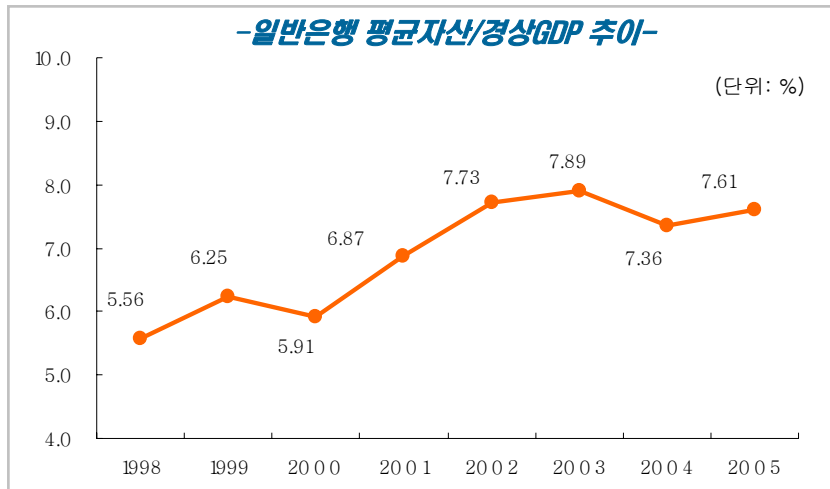
목차

III.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

1. 금융환경 관련 이슈
2. 금융시장 관련 이슈

대형화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생보사는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증권사·손보사의 경우 대형화 부진
- 대형화의 부작용, 중소형 금융회사의 생존 및 장기 발전 등에 관한 검토가 미흡



자료 : 금융감독원

겸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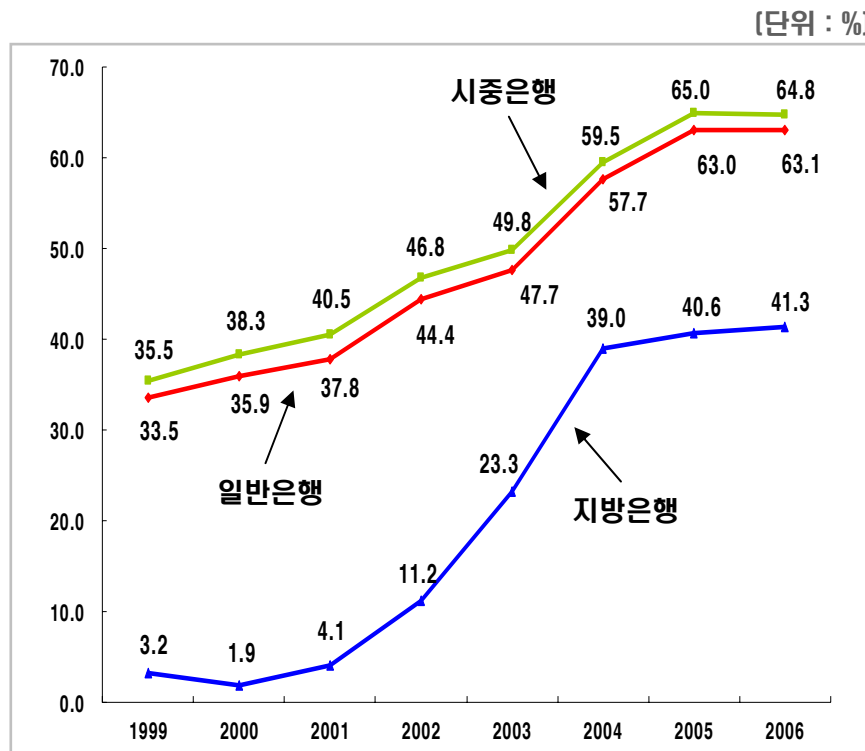
-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나 부수·겸영업무가 확대되면서 권역간 차별성이 약화
- 증권사,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

	예금취급기관 (은행, 저축은행 등)	보험사	증권사	기타
고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적금, 대출, 지급결제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수취 및 보험금지급을 포함한 보험인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의 고유업무는 법적으로 구분 • 여전사는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무 등
부수 · 겸 영업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은 보험·증권, 여전사 등에서 취급 • 일부 지급결제업무는 여전사에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판매 관련업무는 타 권역(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에서 겸업이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은 은행의 부수업무로 겸업이 허용 • 자기매매는 여타 권역에서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의 고유업무는 타 권역간 또는 상호간 경합 • 여전사의 신용카드업무는 은행의 겸영업무

개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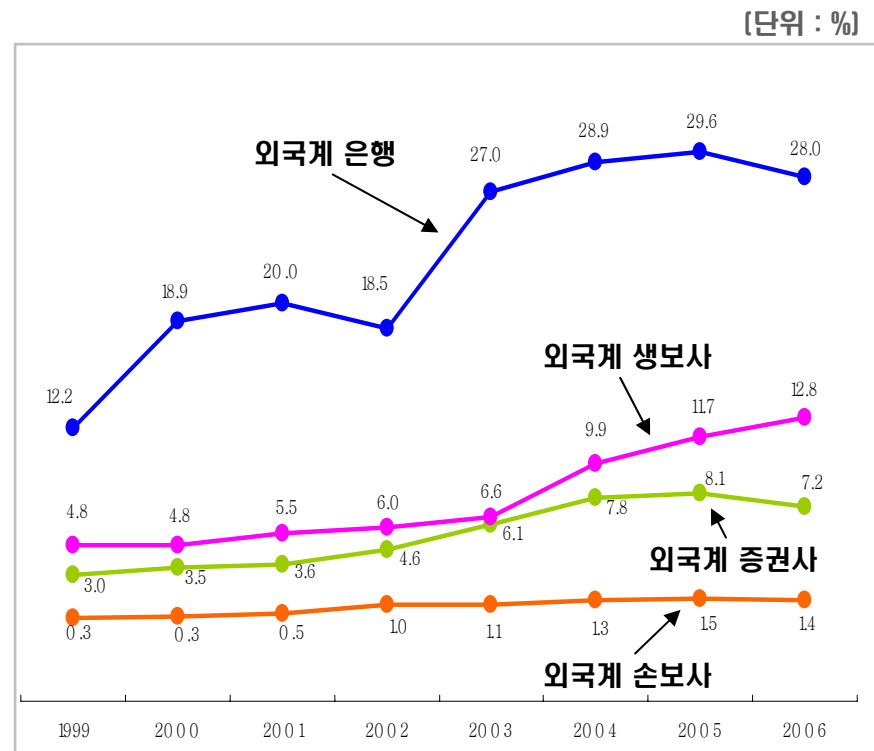
- 외환위기 이후 부실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율과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
- 지분율 상승에 비해 시장점유율 상승은 제한된 폭에 머무는 경향
- 개방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



주: 각 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에 자기자본금액으로 가중치를 주어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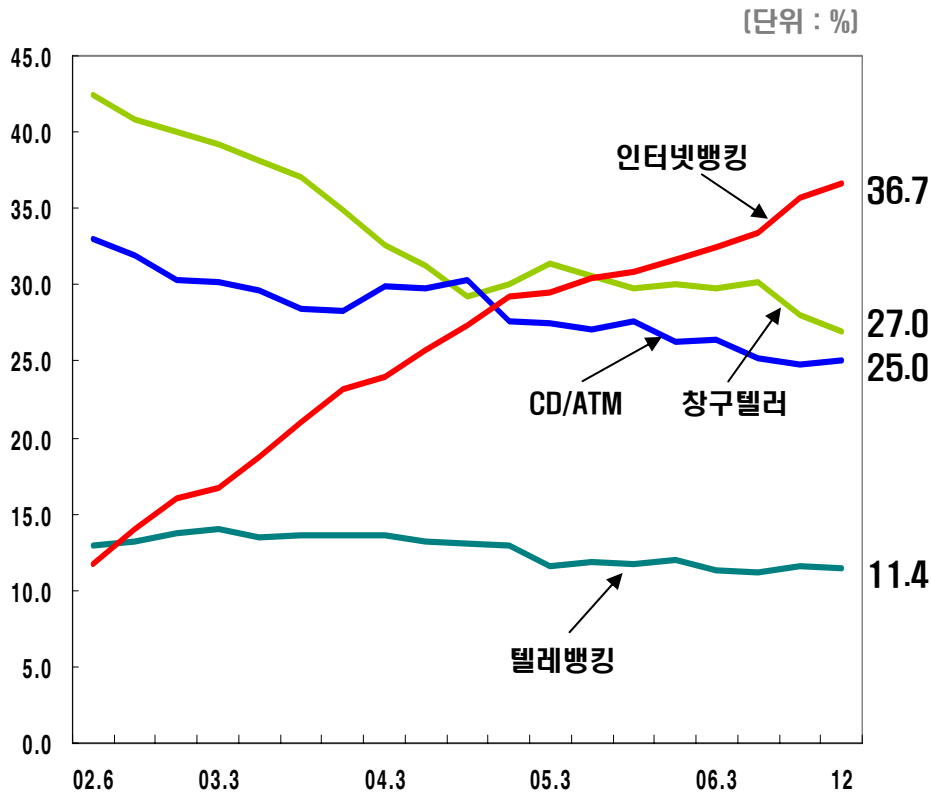


주1: 총자산 기준
 2: 외국계 은행은 외환, 한국씨티, SC제일 및 외국은행 국내 지점
 3: 은행권의 2006년 9월은 말잔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IT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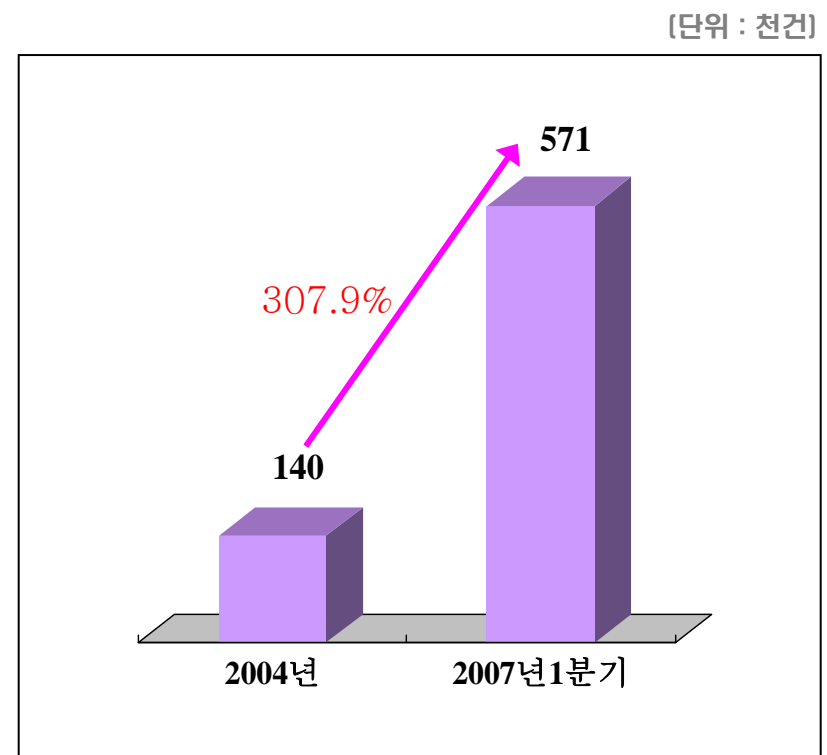
- IT기술 발달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거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경간 거래 및 개방화를 촉진
- IT기술 발달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준비태세가 불충분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추이-



주: 입출금 거래기준으로는 2007년1/4분기 현재 CD/ATM 44.7%, 인터넷뱅킹 22.2%, 창구거래 21.7% 등으로 나타남.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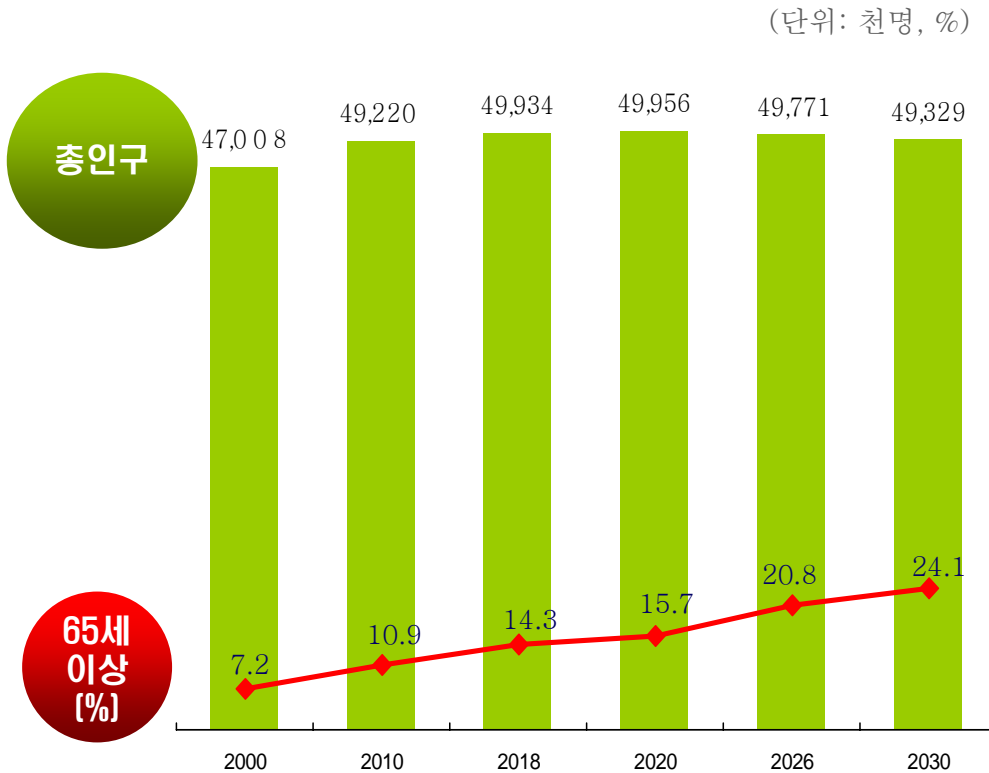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실적-



주1: 이용실적은 조회서비스와 자금이체 포함
 주2: 조회서비스 비중은 전체이용실적의 80% 내외임.
 자료 : 한국은행

고령화

-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금융인력 양성 및 금융안정망 기반 구축이 미흡
 - 65세 이상 인구가 7~14% (고령화사회), 14~20%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2005

- 고령인구비율이 7% ⇒ 14%로 증가하는 데 소요기간은 18년, 14% ⇒ 20%는 8년에 불과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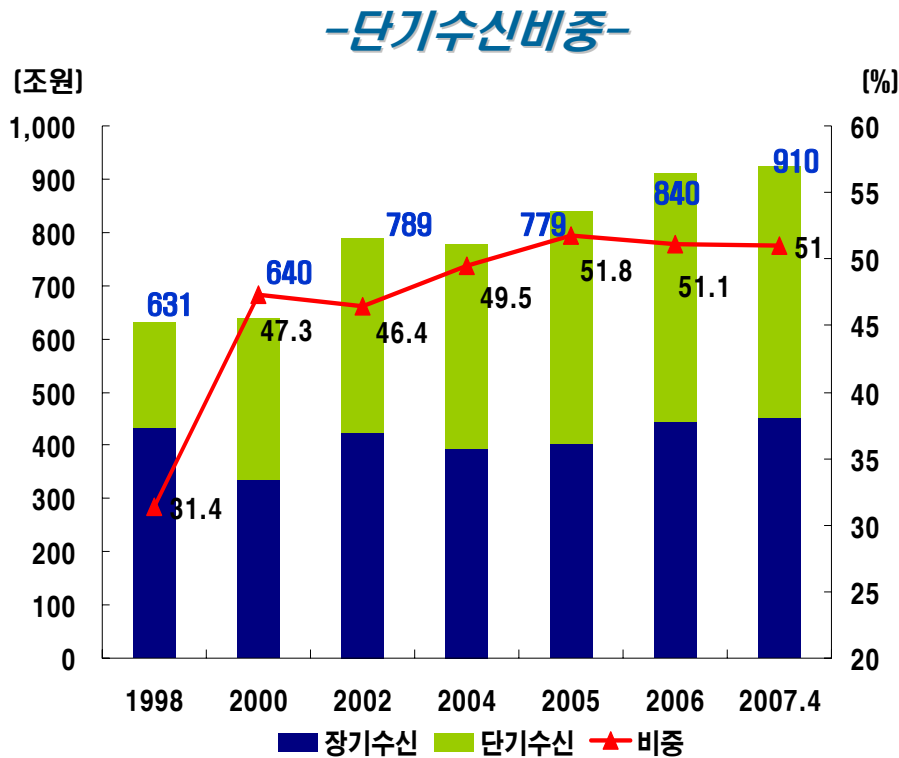
III. 금융산업의 주요 이슈

1. 금융환경 관련 이슈

2. 금융시장 관련 이슈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단기수신이 급격히 증가하고 금융권간 혹은 부동산시장 등으로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
 - 최근 금융권 수신은 단기화현상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저금리기조 및 자본시장 미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



자료 : 한국은행

-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의 영향 -

1. 금융기관의 안정적 수신기반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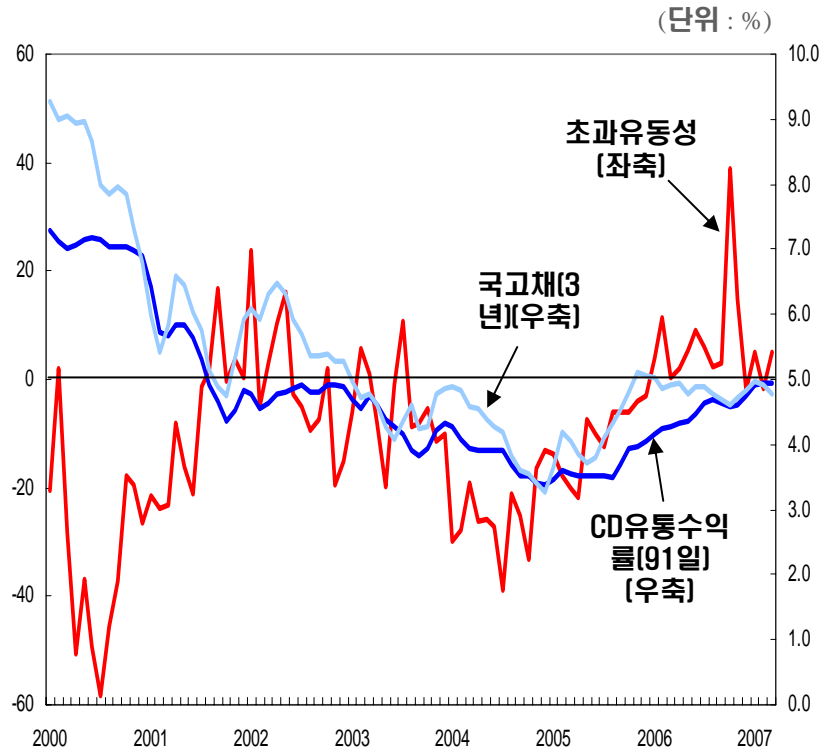
2. 실물부문으로의 효율적 자금공급 저해

3. 시중자금을 투기 자금화하여 금융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

저금리와 초과유동성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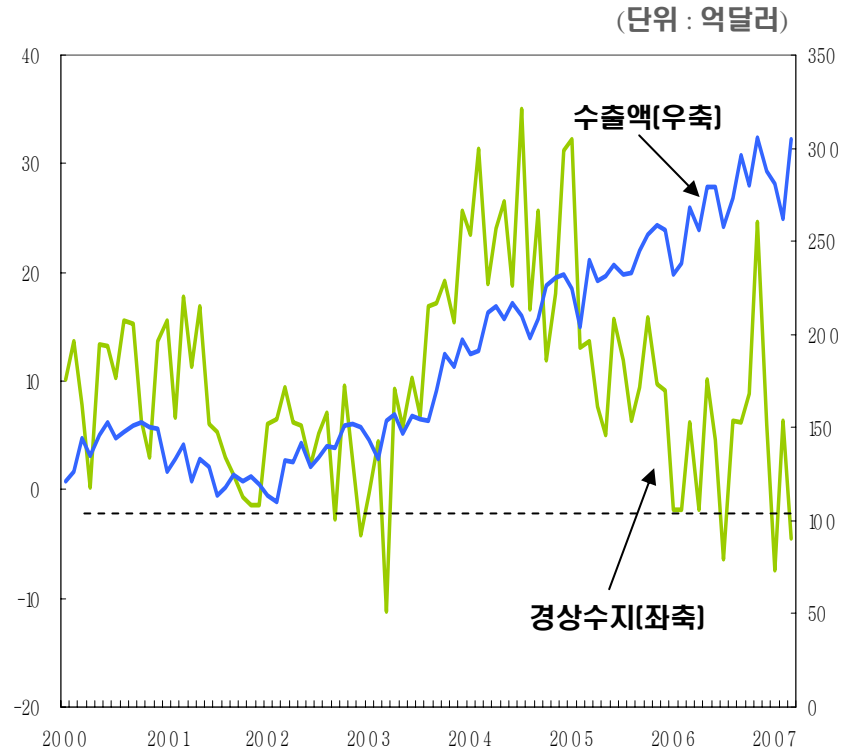
- 저금리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4년 이후 초과유동성이 확대

-시장금리 및 초과유동성 추이-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경상수지 및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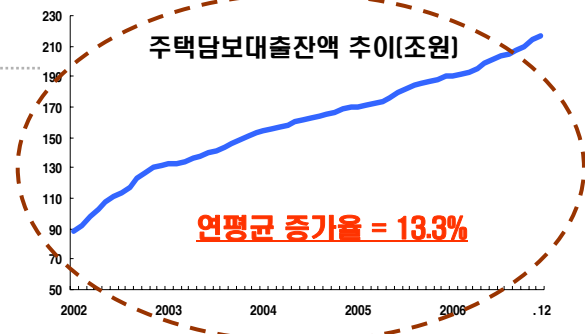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쏠림현상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herd behavior)으로 인해 부분적인 부실요인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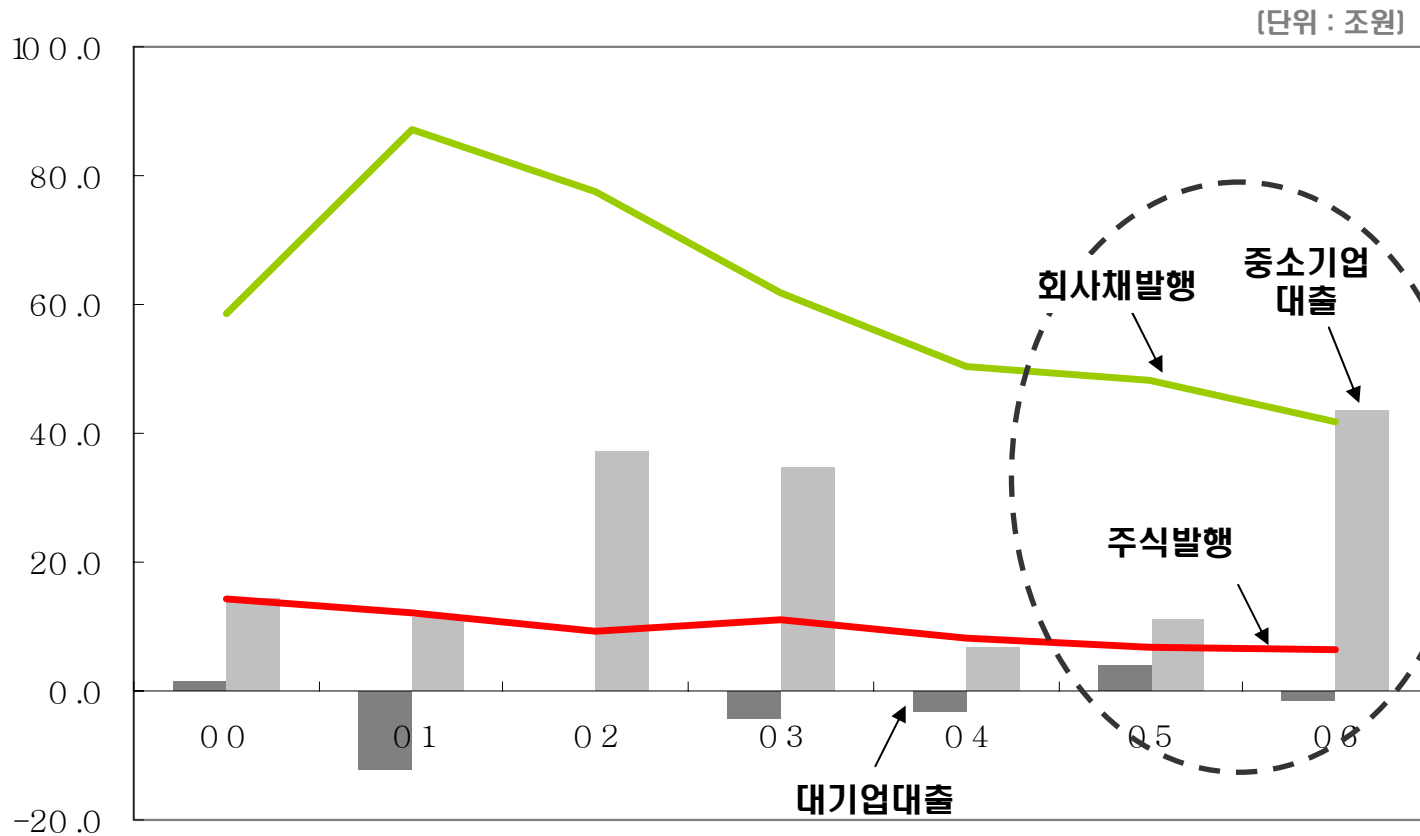
자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취약

- 최근 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접자금조달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주식,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 기업의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순증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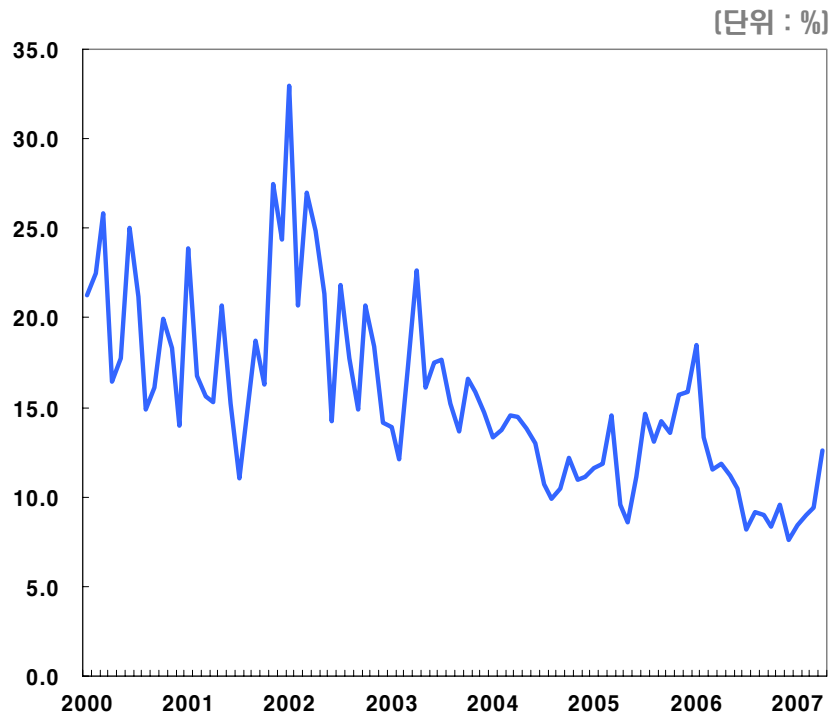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식시장의 유동성 감소,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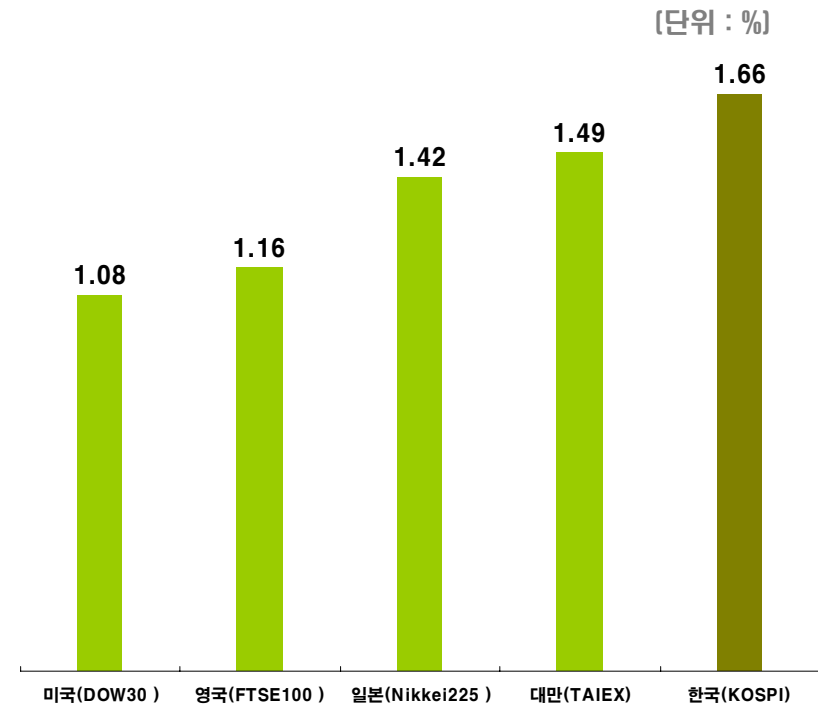
- 주식시장의 유동성(시가총액 회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1.66%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

-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 추이 -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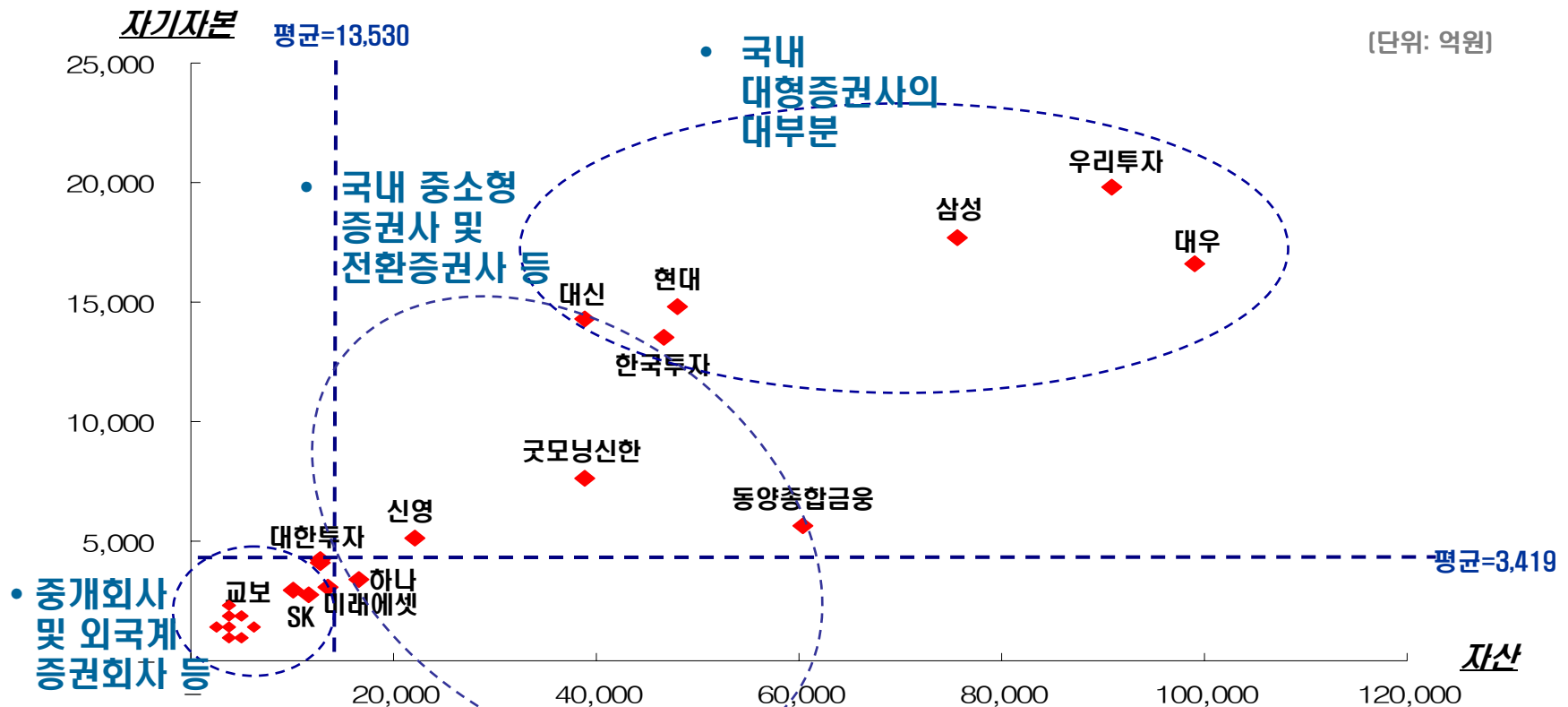
- 주요국의 주가 변동성 추이 -



주 : 2001년~2006년 9월 14일 기간 기준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난립과 기능취약

- 중소형 증권사가 난립하는 가운데 시장을 선도할 대형투자회사 출현이 지연
- 증권업계는 영세한 자본력, 단기적 자금운용, 차별화 되지 않은 사업구조, 중개기능 위축 등의 문제점 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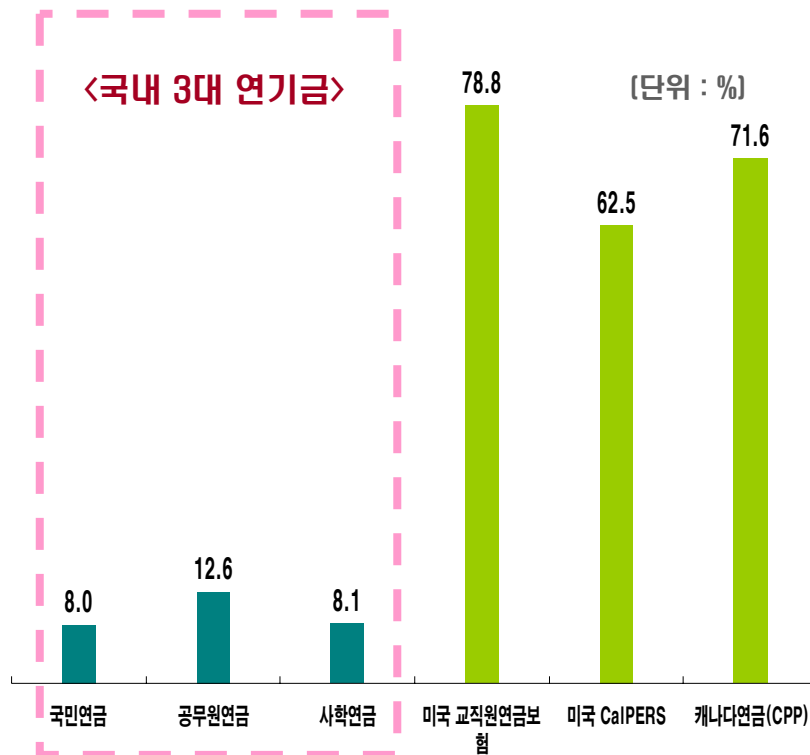


주 : 2005년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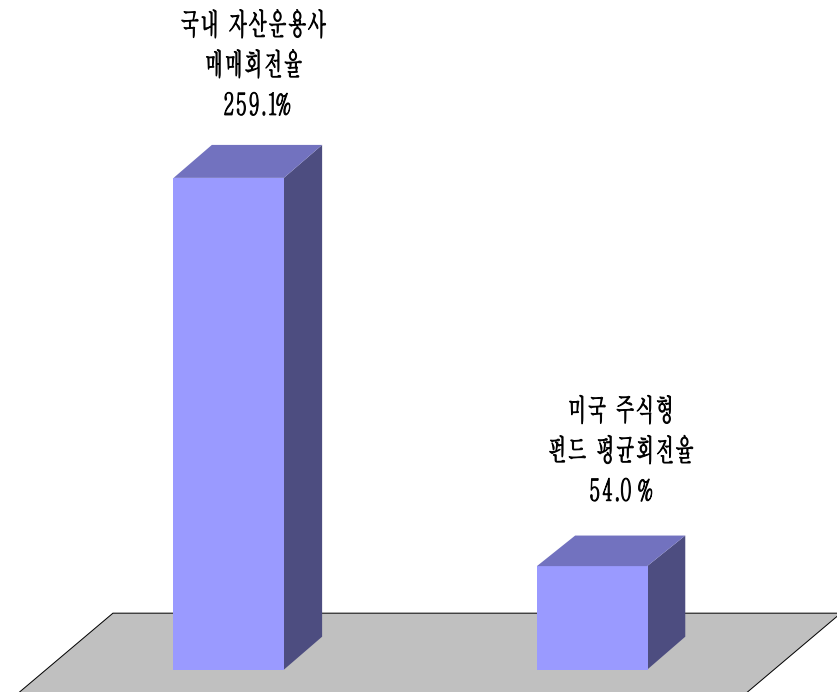
기관투자가 역할 취약

-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음
- 또한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시가총액 회전율이 매우 높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추이 -



- 자산운용사 매매회전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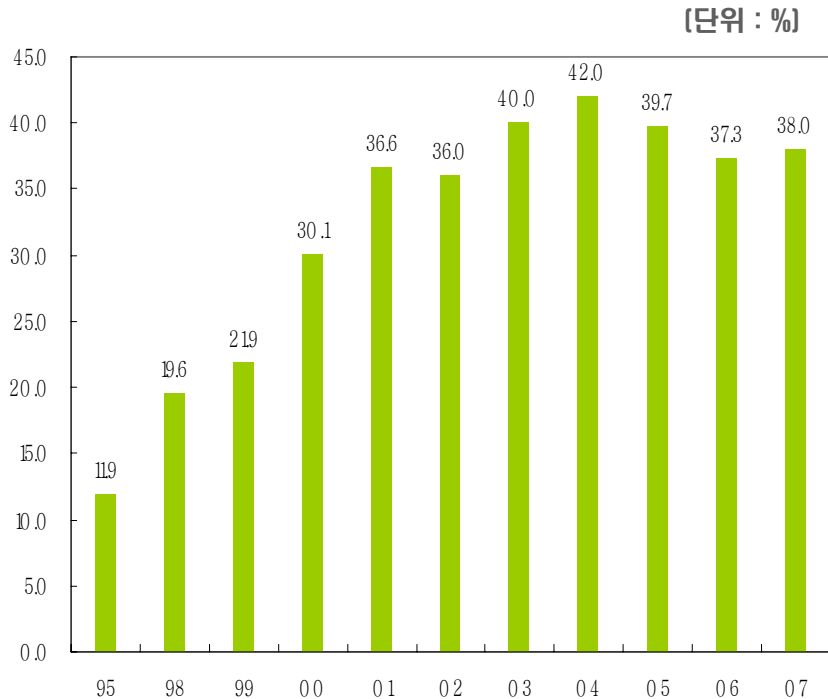


주 1: 국내 자산운용사 회전율은 2003~2005년 평균
 주 2: 미국 주식형 펀드 평균회전율은 2004년 기준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외국자본의 영향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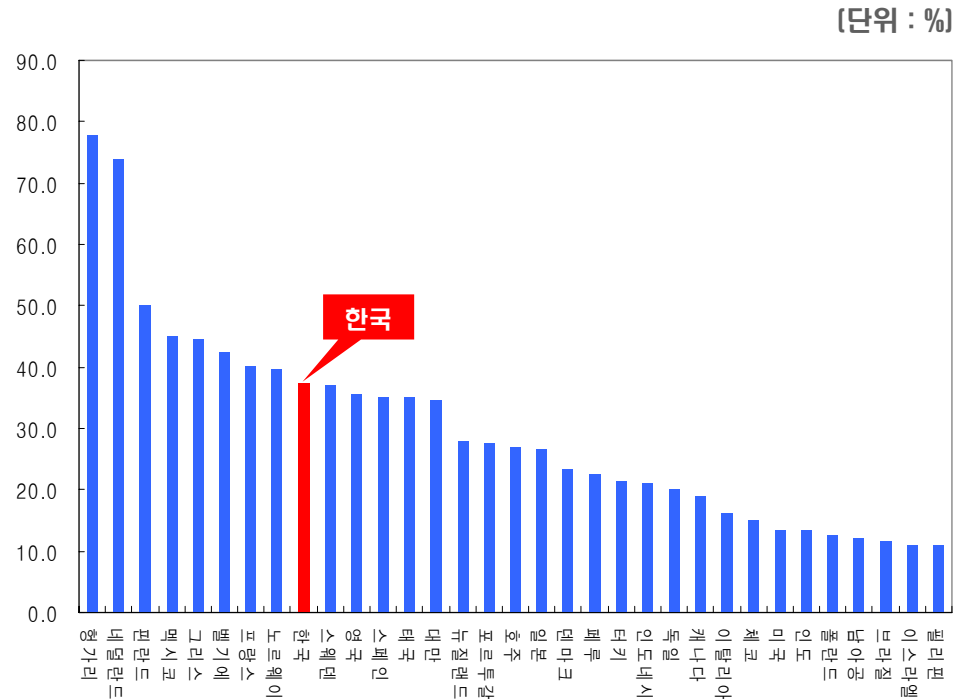
-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1998년말 2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07년 12월말 현재 38.0%를 기록**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주식보유 비중은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



주: 시가총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 주요국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



주: 국별 기준일은 자료출처를 참조(한국은 2006년 12월말)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국인 주식투자 현황 및 주가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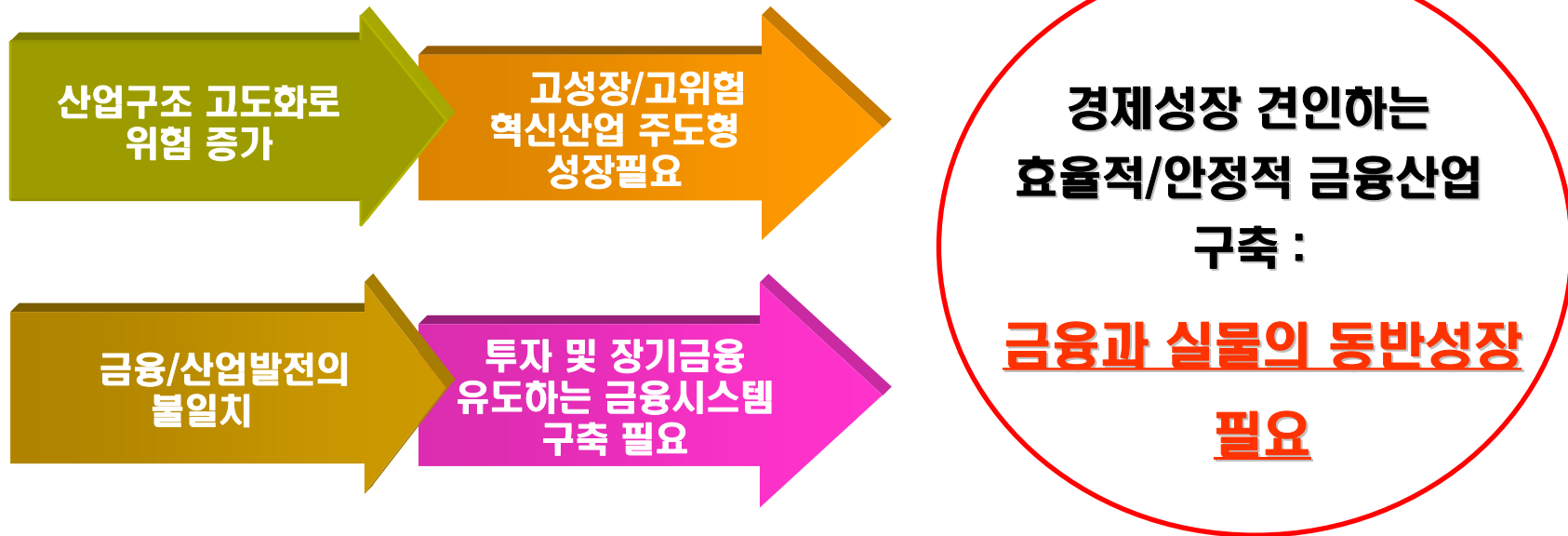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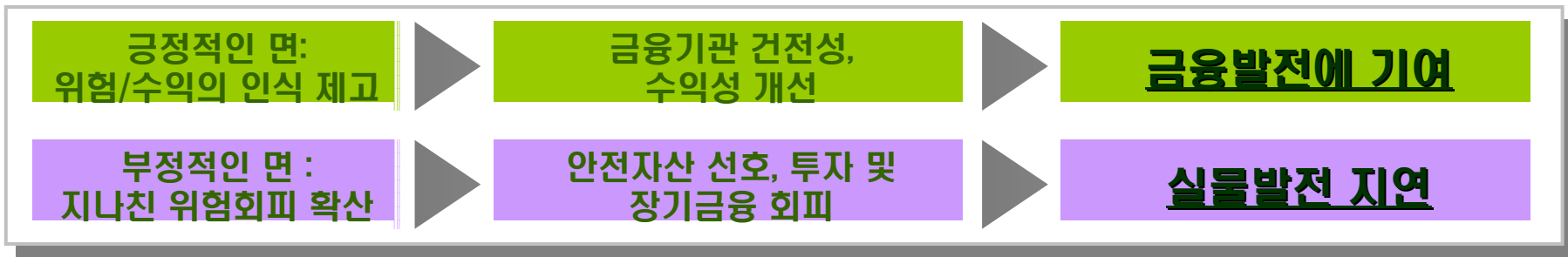
IV.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1. 비전의 재구축

2. 비전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예시)

비전의 재구축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비전의 재구축(계속)

- 금융산업이 구조조정의 화두를 넘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역량을 업그레이드

금융시스템 업그레이드

- 단기·저축 중심에서 장기·투자 중심의 금융자산 형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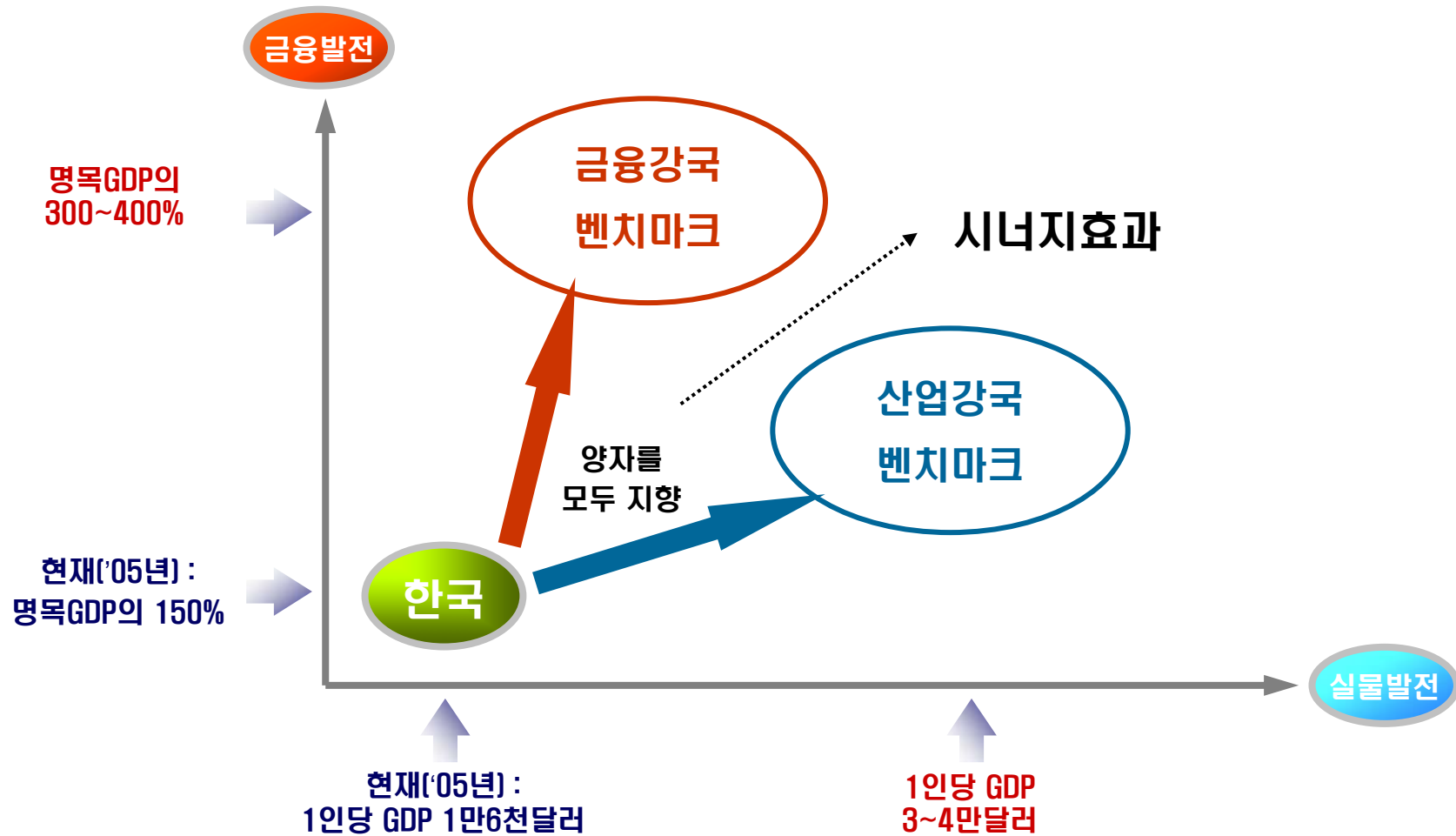
대내외 역량 확충



비전의 재구축(계속)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금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비전의 재구축(계속)

- ❖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 ❖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Post-Restructuring New Landscape

① 경쟁력 있는 금융 하부구조 구축

- 금융규제 선진화
- 금융감독역량 확충
- 시장 투명성 제고
- 금융전문인력 확보

② 금융시장의 선진화

- 직접-간접 금융시장의 동반성장
- 기관투자자의 역할 정립
- 장기금융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③ 금융산업역량 강화

-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 금융자본/산업자본/외국 자본 균형발전
- 금융회사 전략의 차별화
- 겸업금융의 방향성 정립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④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 리스크 중심 감독의 확립
- 금융-산업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 금융소외 문제의 해소

목차

IV.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1. 비전의 재구축

2. 비전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예시)

① 중 금융규제 선진화

- 자본시장통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 증권, 보험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금융관련법을 정비/통합

- **고유업무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 상호 겸업을 허용하여 은행·증권·보험업의 조화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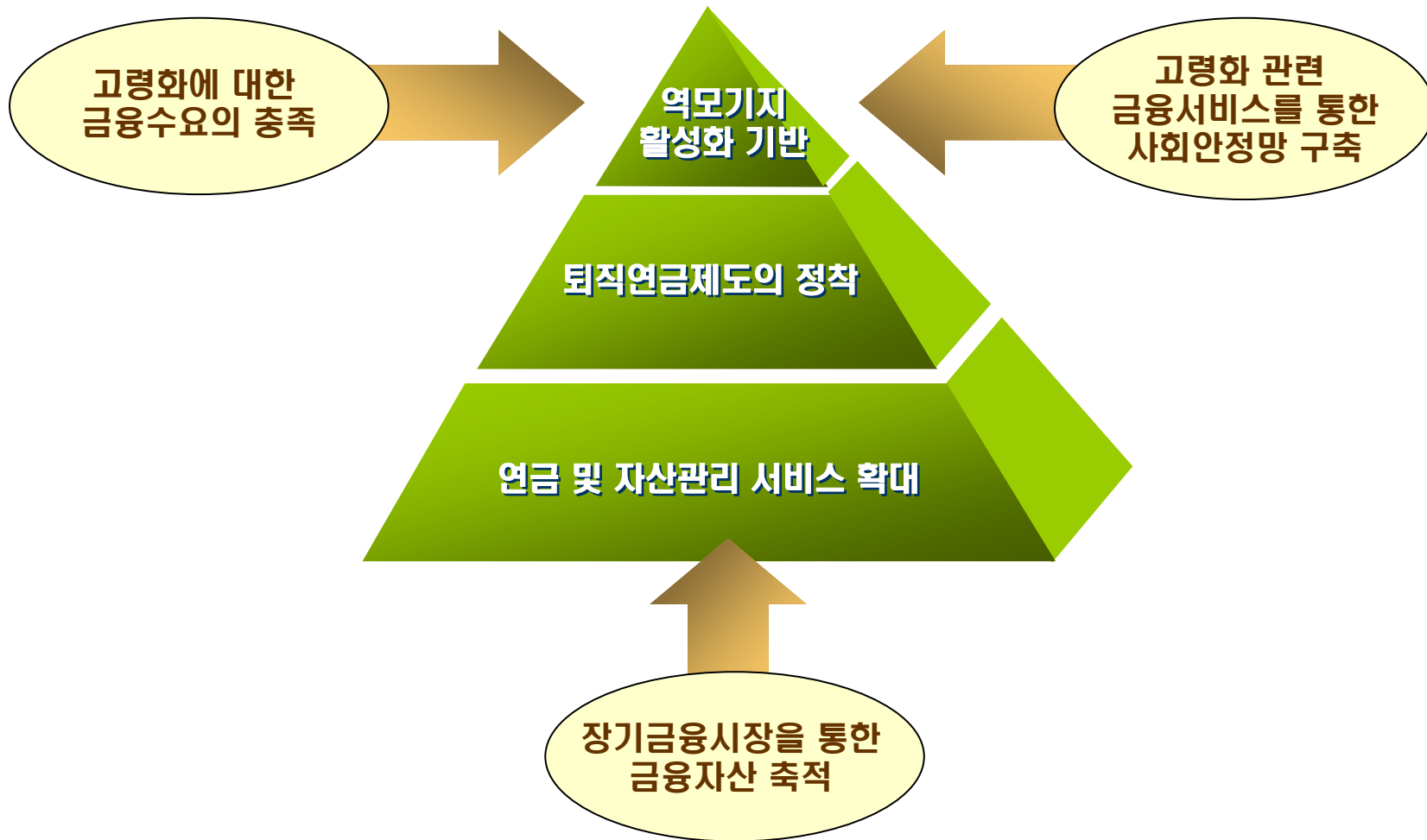
- ➔ 고유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권간 겸업을 원칙적으로 금지
- ➔ 고유업무가 아닌 경우 상호 겸업을 허용하여 겸업화의 장점을 살림
- ➔ 고유업무와 겸영가능업무는 지주회사방식으로 운영하고 권역별 전문회사 육성

- **모든 금융업무에 인가제를 적용하되 금융업무/금융상품/거래상대방을 감안하여 규제방식을 차별화**

- ➔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원금보장형 또는 원본초과손실위험 금융상품 취급 행위나 업무에 대해서는 허가제 유지
- ➔ 전문고객을 상대로 원본손실위험, 원금비보장형 금융상품 취급시 등록제 적용
- ➔ 그 외의 경우 인가제를 적용하며, 감독당국은 금융업무 허용에 대한 사전·사후적 적격성심사(dynamic fit and proper test)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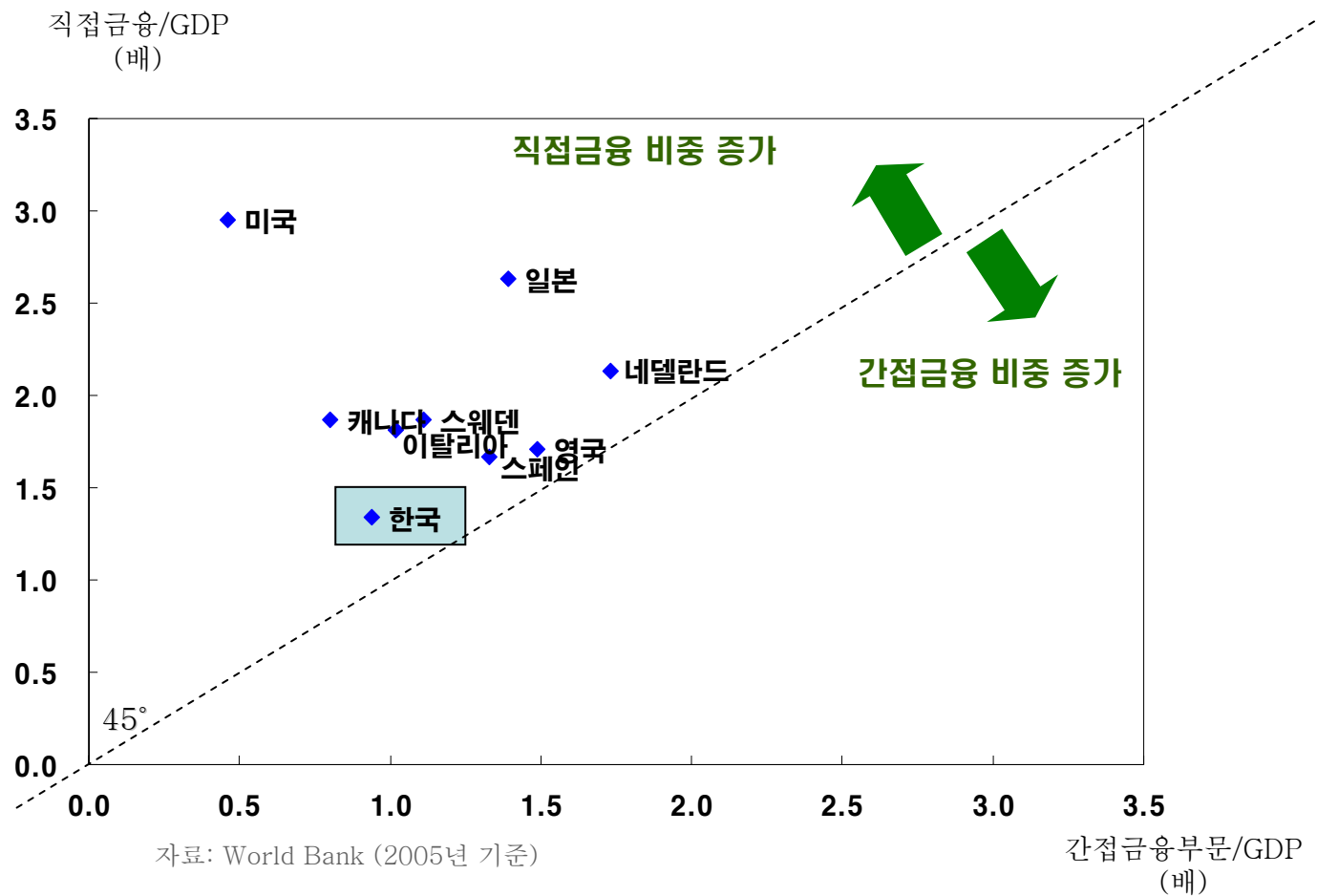
② 중 장기금융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 장기금융시장의 육성 및 이를 통한 금융자산 축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고령화에 대비하여 금융서비스를 다양화



② 중 직·간접금융시장의 동반성장

- 국내 금융시장은 직접 금융시장의 비중 및 발전 정도가 낮아 직·간접 금융시장의 동반성장이 필요



② 중 직·간접금융시장의 동반성장(계속)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 증권·투신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IB업무 중심의 금융투자회사로 육성
- 대형화, 신뢰 구축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직·간접금융의 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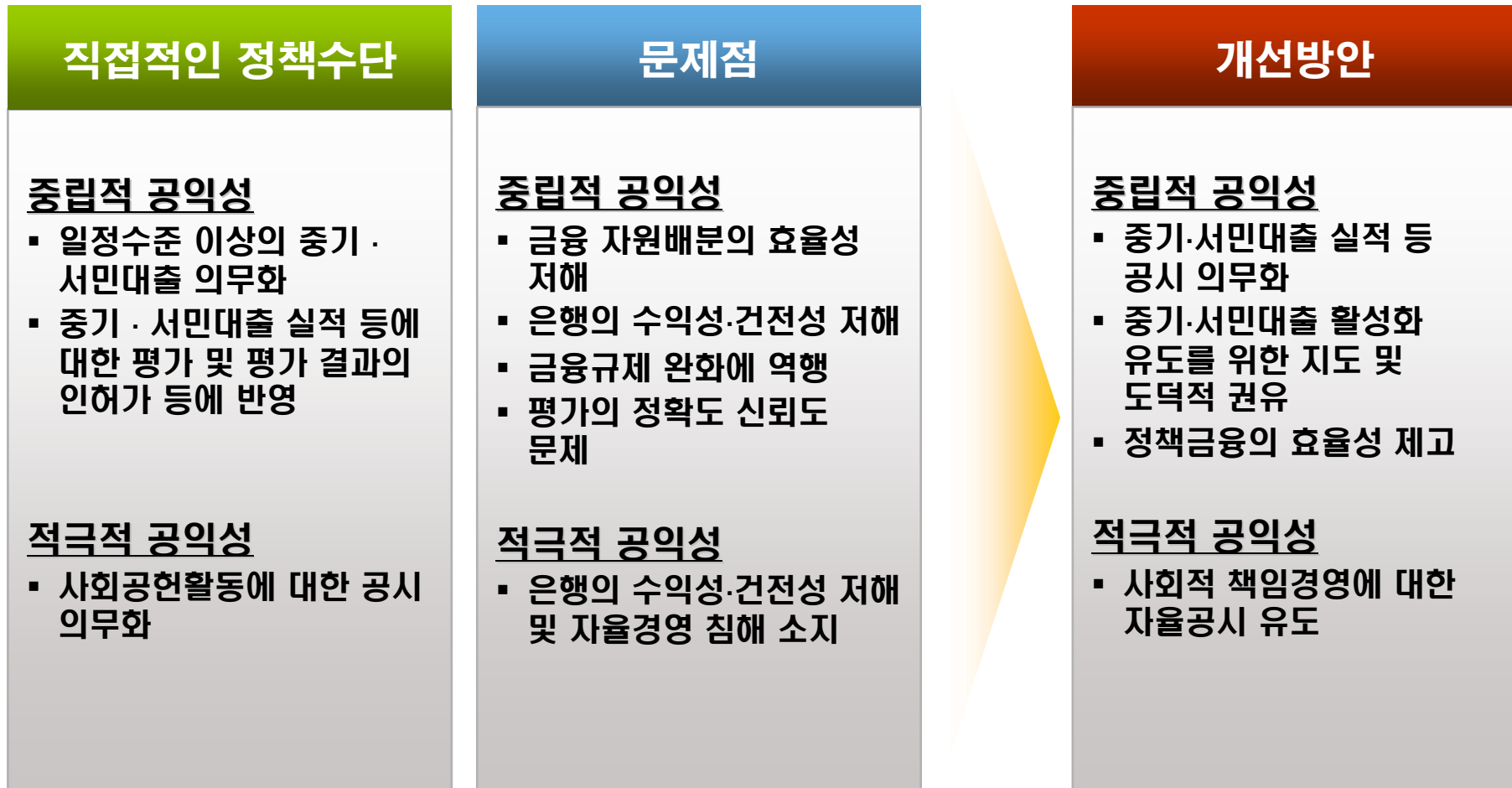
- 자본시장 참여자들에 직·간접금융을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폭넓은 판매채널을 보유한 은행이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도록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보험업을 장기 자산운용산업으로 육성

-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을 장기자산운용산업으로 육성
- 상장차익의 올바른 사용으로 시장 신뢰도 제고 및 대형화 유도

③ 중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 : 은행의 공익성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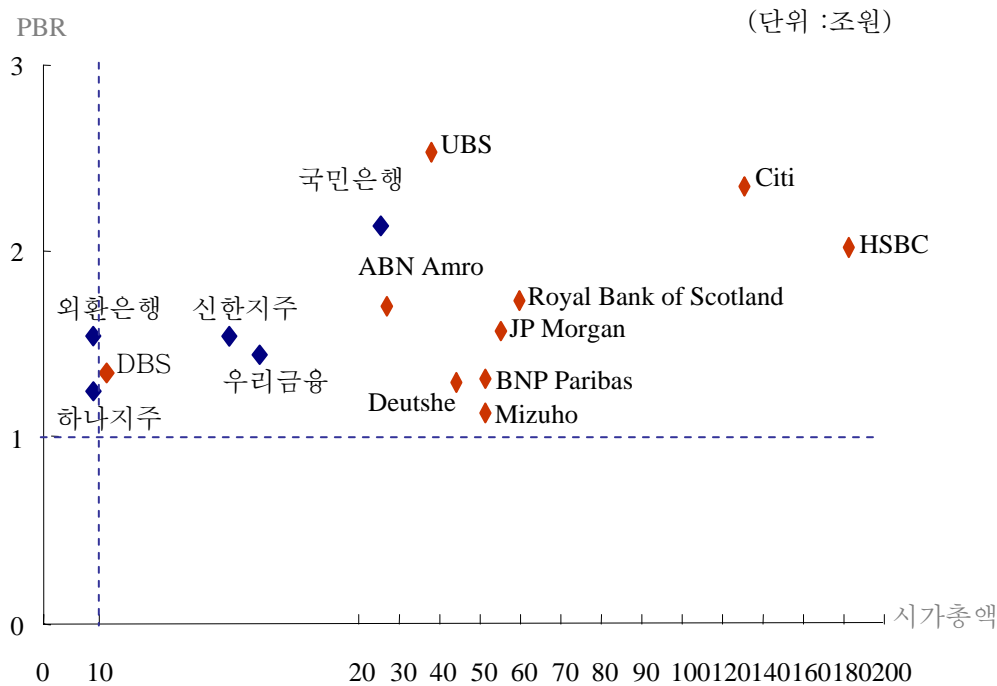
- 직접적인 정책 수단은 경영 자율성 및 건전성 저해 우려
 ⇒ 시장규율을 최대한 활용하여 은행 자율적인 노력 유도



③ 중 겸업금융의 방향성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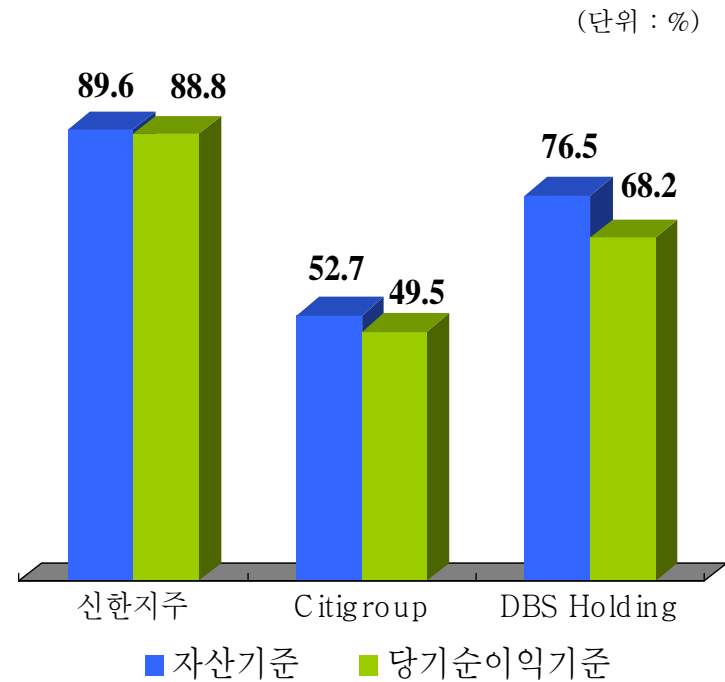
- 지주회사방식의 금융겸업화를 유도하여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방지
- 비은행 금융(전업) 그룹 출현을 유도하여 은행과 비은행간 균형발전을 도모

- 주요 은행의 전략도 -



자료 : Bankscope (2003년 말 기준), 국내은행은 2005년말 기준

- 지주회사에서의 은행부분 기여비율 -



주: 신한지주는 2005년말 기준, DBS는 2004년 12월말 기준
Citigroup은 2003년 12월말 기준
자료: Bankscope

EOD